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어떤 참전

(The Fighting Ground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韓英學科

高銀慧

2016年 7月

어떤 참전

(The Fighting Ground 翻譯論文)

指導教授 金 載 原

高 銀 慧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7月

高銀慧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通譯翻譯大學院

2016年 7月

어떤 참전

Eun-Hye Koh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6. 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
TRANSL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pril 3, 1778

9:58

조나단이 맨 처음 종소리를 들은 건 그날 아침이었다. 그는 덥고 칙칙하고 따분한 기분으로 따사롭고 드넓은 들판에 서있었다. 아버지는 거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새로 개간한 옥수수 밭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그저 군인이 된다는 생각에만 젖어 있었다.

조나단의 형은 펜실베이니아의 워싱턴 장군 휘하의 군인이었다. 그의 사촌도 이미 군에 입대한 터였다. 그래서 조나단도, 아버지가 대체 언제면 자기에게도 군에 가도 된다고 허락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조나단도 어느 덧 열다섯 살 이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조금 더 있어보라고만 했다.

조나단은 자기에게도 언젠가는 총을 들고 적과 싸우게 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그의 친구 분들이 무자비한 영국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돈 때문에 영국 편에 선 잔인한 동맹국들과 독일어를 쓰는 용병들, 끔찍한 토리당¹⁾과 악랄한 영국 왕 편에 선 반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터였다.

하지만 조나단의 아버지는 더 이상 전쟁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지난겨울 내내 아버지는 펜실베이니아 근처에서 전투를 치렀고 거기서 다리 부상을 입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걷기가 힘들었고 조나단은 아버지 곁을 지켜야만 했다.

조나단이 전쟁에 관해 물어봐도 아버지는 흐린 낮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을 뿐

1) 미국 독립혁명 때에 영국 본국으로부터의 분리를 반대하고 본국에 충성을 보인 왕당파.

이었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혼자서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던 터에 조나단과 아버지는 함께 우두커니 서서 그 종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막에서 울리는 그 종소리는 전투에 나갈 장정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종이 단 한 번만 울렸다. 두 사람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종소리가 다시 울리지 않을까하고 귀를 기울였다.

조나단은 들판 저편을 살펴봤다. 나무그루터기 옆에는 아버지의 머스킷 총이 있었다. 탄약가방과 뿔 화약통도 있었다. 총은 언제든 쏠 수 있도록 장전된 상태였다. 조나단도 그 총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나단을 훈육시키고 단련시키면서 다들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던가? 조나단도 자기 친구들과 전쟁에 대해, 과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투에 대해, 또 훌륭한 장군들이 구사하는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곤 했었다. 그 장군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언제나 승리를 거두지 않았었던가?

조나단은 종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실망감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버지는 다시 하던 일을 했다. 아버지가 팽이를 부드럽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마치 시계바늘처럼 일정하게 들렸다.

조나단은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새로운 뉴저지 군복을 떠올렸다. 빨간 금장이 달린 파란 상의를 입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얀 양말을 신고 멧돌어진 총을 어깨에 둘러멘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처음에는 잔잔하게 울리던 종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울릴 때 마다 고요함이 사라졌다.

“무슨 생각 하세요?” 조나단이 물었다.

아버지가 검정 중절모를 벗고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다. 아버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남쪽을 봤다. 그러면서 무심코 다친 다리를 문질렀다.

조나단은 알 수 없는 표정을 한 아버지를 보며 총 옆에 있는 흙 항아리에 담긴 물을 마시러 들판 끝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아래로 흐르자 차가움에 몸을 떨었다. 다시 종이 울렸다. 조나단은 아버지를 힐끗 보고는 반짝이는 총구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끝부분이 아주 마음에 들

었다.

“집에 가보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누군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올지도 모르니 말이다. 나도 알아야겠어.”

조나단은 급히 집을 향해 달렸다.

“조나단!” 아버지가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조나단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절대! 절대로 딴 마음 먹지마라.”

조나단과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봤다. 조나단은 긴장으로 배가 간질거렸다. 그 순간 아버지에게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둘은 서로의 눈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조나단은 서둘러 뒤로 돌아 집과 들판 사이 잡목 나무숲을 가로질러 달렸다. 뒤에서 아버지가 다시 일하는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고 종소리가 메아리쳤다.

10:15

조나단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 걸음을 재촉했다. 태어나서부터 줄곧 살아온 자기 집으로 오는데 어머니가 현관에 나와 있었다.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머니의 치마 자락 뒤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조나단이 말을 꺼내기 전에 어머니가 먼저 물었다. 그는 어머니가 걱정하고 있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멀리서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움찔하셨다. 어머니는 늘 전쟁을 싫어했고 전쟁에 관해 말을 하는 것도 싫어했다. 전쟁터로 간 형이 아직까지 소식 하나 없어 너무나 속을 태우고 계셨다.

조나단은 어머니의 물음에 멈춰 섰다.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 조나단은 맨발로 부드러운 흙바닥을 뒤적거렸다.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누군가 소식을 들고 올지 모르니 가보라고 하셨어요.”

“아직 아무도 안 왔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아마 영국군이 트렌턴²⁾을 되찾으려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2년 전 불과 20마

일 떨어진 곳에서 워싱턴 장군은 헤센³⁾을 물리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나단은 자신의 신발을 찾으며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종소리가 멈췄다. 적막이 감돌았다. 조나단은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닌지 불안했다.

“주막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까요?” 조나단이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다. 그는 문 옆 벤치에 있는 자신의 신발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시던?”

조나단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빠져나온 머리칼을 모자 뒤로 넘기고는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는 동생의 손을 찰싹 때렸다. “일단 가보는 게 좋겠구나. 아버지는 못가실테고. 상황은 알고 있어야 하니 말이다.”

조나단은 혹시나 어머니의 마음이 바뀔까 재빨리 앞으로 나가 신발을 신고는 일어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냥 물어만 보고 와야 한다. 바로 돌아 와야 해. 알겠니?” 어머니가 외쳤다. 조나단은 못 들은 척 계속 달렸다.

10:25

조나단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급히 모퉁이를 돌아 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향해 갔다. 조나단은 냉장창고를 지나 길을 따라 속도를 높였다. 이 길을 따라가면 오래된 나무숲이 있었다. 부드럽고 따스한 나무냄새가 가득한 곳이었다.

조나단은 달리면서 생각했다. 전쟁일지도 몰라, 큰 전쟁. 군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느님 제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주세요.’ 조나단은 혼잣말을 했다.

큰 군대, 대포, 깃발, 드럼과 군악대! 제발 나도 싸울 수 있기를. 형처럼, 아버지처럼 잘 해내기를. 더 잘해낼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느님, 큰 전쟁이 났다고 해주세요.

2) 트렌턴 전투(Battle of Trenton)는 미국 독립 전쟁 중 1776년 12월 26일에 뉴저지 트렌턴에서 벌어진 워싱턴 장군이 이끄는 미국 대륙군과 독일 용병 부대로 구성된 영국군의 전투이다.

3) 영국이 고용한 독일인 용병(부대)

조나단은 더욱 힘차게 달렸다. 이제 숲길을 벗어나 알렉산드리아가로 들어섰다. 예전에 알던 애가 살던 집도 지나쳤다. 조나단과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살해당했다. 조나단은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아이의 가족들은 너무나 끔찍한 전쟁이었다고 말하며 그 전쟁에 대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했다.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토리당의 비밀 당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그들과 같은 토리당원이나 스파이 혹은 변절자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토리당원들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조나단은 단숨에 작은 동산 꼭대기까지 올라 숨을 골랐다. 가슴에 빨간색 털이 있는 비둘기가 하늘을 빙빙 돌았다. 다람쥐 울음소리가 들렸고 수탉이 울어댔다. 따뜻한 봄이었고 전쟁을 치루기에 딱 좋은 날씨였다. 조나단은 자신이 뭐든 해볼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으며 누가 뭘 시키든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조나단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서있던 바로 그 순간 종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주막으로 갈 수도 있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주막으로 간다면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전쟁에 나가 싸울 생각이었다.

“해보는 거야! 가서 싸우는 거야!” 조나단은 다짐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전쟁을 두려워했지만, 그는 아니었다. 그는 다시 종소리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조나단의 몸속에서 봄기운 가득한 대지처럼 피가 끓었다.

10:45

주막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고,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집 전체가 돌로 지어져서 요새처럼 보이기도 했고 반짝이는 유리 창문과 높은 지붕이 있어서 성처럼 보이기도 했다. 거기에서부터 남쪽으로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페닝턴 마을이 있었고,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트랜턴 마을이 있었다. 그리고 영국군과 헤센이 그 두 곳을 장악하고 있었다.

남서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는 알렉산드리아 마을이 있었다. 북동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에는 플레밍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큰 강을 아우르는 웰스페리 마을이 있었다. 이곳들은 모두 미국 쪽 마을이었다. 조나단은 그 미국 쪽 마을에도 그 영국 쪽 마을에도 가본 적이 없었다.

조나단이 주막으로 다가가자 종이 보였다. 또래의 친구 녀석이 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종이 받침대 위에 걸려있었고 언제든지 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들판 한쪽에서는 남자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됐다.

몇몇 사람들은 이미 주막 앞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조나단은 소심해져서 천천히 걸음을 늦췄다. 그가 쭈뼛쭈뼛 다가가는 동안 한 남자가 나무 위로 올라가 길 너머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다.

조나단은 누군가가 상황을 설명해 주길 바랐지만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자신이 함께 싸우러 왔다는 걸 모르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온다!” 나무위에 있던 남자가 외쳤다.

“총을 들었나?”

“그런 거 같습니다!”

주막 한 쪽 모퉁이에는 탄약 가방, 빨 화약통, 총이 놓여있었다. 조나단은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올 걸하고 후회했다.

“아버지도 오시니?” 누군가 조나단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안 좋잖아.” 대답도 하기 전에 누군가가 끼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조나단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속상한 조나단은 종이 걸려있는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어른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냥 그 친구에게 물었다. “누가 온다는 거야?”

“군인들” 총을 치는 중간 중간 그친구 녀석이 대답했다.

조나단은 갑자기 흥분됐다.

“적군?”

“그렇다는 거 같아.” 친구가 대답했다.

11:00

조나단이 뒤를 돌아 한 남자가 주막 밖으로 나왔다. 조나단은 처음 보는 남자였다. 그 남자는 덩치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붉은 곰보자국이 있었다. 바지 밖으로 빠져나온 셔츠는 더러웠고 암녹색의 재킷은 소매 끝이 닳아 빠져 누가 봐도 오래되어 보였다. 부츠에는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모자는 너무 작아보였다.

그 낯선 남자는 한 손에 큰 맥주잔을 들고 주막 밖으로 나오며 다른 손으로는 입에 묻은 부스러기를 닦았다. 그는 주막 문 앞에 서서 모여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남자들을 살펴보았다.

“다 온 거요?” 그 남자가 물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소.” 누군가 말했다.

“시간이 없소.” 그 남자가 말을 잘랐다. 그는 반쯤 뒤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주막 주인이 출입구에 서있었다.

“맙소사” 그 남자가 계속 얘기했다.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거요?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쳐들어 올 거요.”

주막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남자가 언덕 위에서 달려오며 물었다. “적들이 어느 쪽에서 오고 있소?” 그 남자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페닝턴이요.” 모여 있던 남자들 중 한 사람이 답했다.

“몇 명이나 되오?”

“15명 정도요.”

“누가 본거요?”

“상사가 왔소.”

모두가 그 낯선 남자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그는 술을 들이켰다. 다 마신 큰 잔을 주인에게 건네자 그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소!” 나무 위에 있던 남자가 소리쳤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소. 상사” 그가 낯선 남자에게 말했다.

“앞으로 민병⁴⁾이 더 모일 거요.”

“폭풍이 몰아치겠군.” 주막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사는 문가를 지나 모여 있던 남자들에게로 다가갔다.

“민병들이 린베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오?”

“4마일 정도니 한 시간 반 정도요.” 누군가 답했다.

그 낯선 남자는 초조한 듯 두 손을 비볐다. 그러더니 그는 갑자기 조나단이 서 있던 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종을 멈춰라.” 상사가 조나단의 친구에게 소리쳤다. “알아서들 모이겠지.”

그러자 그 친구는 줄에서 손을 놓았다.

낯선 남자는 모여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돌아보다 자신을 쳐다보고 있던 조나단을 발견했다.

“총을 다룰 줄 아나?”

“네” 조나단은 망설이다 대답했다.

“너는?” 그는 조나단의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상사는 언짢은 얼굴을 하고는 다시 몸을 돌려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로 갔다.

네 명이 더 합류하여 총 열 세 명이 모였다. 상사는 그들을 살펴보고는 주막 주인에게로 고개를 돌려 물었다.

“같이 갈 거요?”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니 2차 방어선이 필요하오. 그러니 우린 여기 있겠소.” 주막주인이 말했다.

상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그의 말안장을 단단히 죄었다.

그때 조나단은 문득 ‘이 상사라는 사람이 소식을 들고 왔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나단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대체 뭘 봤는지, 왜 여기 온 건지 궁금했다.

상사는 안장 정리가 끝났는지 뒤를 돌아 기다리는 남자들을 보며 말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소. 이제 가야하오.”

남자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4) 전시에 대비하여 평상시 단기소집 교육을 받은, 정규군인이 아닌 병력.

“더 기다려야하지 않겠소?” 누군가 물었다.

“너무 늦었소.” 상사가 말했다. “갈 거요, 말 거요? 갈 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보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증얼거렸다. 다른 사람들도 뒤이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점차 웅성임이 커졌다.

“좋소.” 상사는 이를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나단에게 시선을 멈췄다.

“너,” 그가 조나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총을 사용할 줄 안다고 했지? 안에 가서 총을 가져와라. 너도 함께 간다.”

11:30

조나단의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다. 조나단은 놀라서 자신을 보는 친구에게 살짝 씩 웃어보였다. 그리고 나서 조나단은 문 옆에 서있던 주막주인을 향해 돌아섰다.

“너도 가는 거니?” 조나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주막주인이 먼저 물었다.

“네”

“네가 꼭 필요하대?”

조나단은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던?”

“가도 된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조나단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 잘나신 상사께서 총을 주라했으니.”

“저도 총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길 바란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며 “따라 오렴” 하고 말했다.

조나단은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안은 어두웠다. 따듯한 느낌을 주는 짙은 갈색나무 바닥은 닳아서 반들반들했다. 지독한 맥주 냄새와 사과주 냄새가 가득했다.

조나단은 문 안쪽에 서서 기다리며 반대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큰 방을 응시했다. 석쇠 뒤에서 주인아저씨의 셔츠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후 어둠속에서 아저씨가 손에 총을 들고 나타났다. 머스킷 총이었다. 6피트 길이였고 개머리판⁵⁾과 몸통은 광택이 나는 나무로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총보다 오래되어 보였다. 그야말로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조나단은 한 손을 뺀어 차가운 금속 총열⁶⁾에 손가락을 댔다. 총은 생각보다 꽤 무거워서 다른 손으로 받쳐 들어야 했다.

조나단은 총을 짊 잡고 가슴께로 당겨 개머리판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총구가 거의 그의 머리까지 닿았다.

“다룰 수 있겠니?” 아저씨가 물었다.

“네, 물론이죠.”

“무게가 12파운드 정도일거다.”

조나단은 꽃을대⁷⁾부터 반짝이는 공이치기⁸⁾, 개머리판까지 총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는 자신이 쓸 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일었다.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하겠니?”

“네.”

“남자 대 남자로 맹세하지?”

“네.”

주인아저씨가 탄약 가방을 목에 걸어주었다. “내가 만든 탄약 30개가 들었다. 여기 화약은 따로 주마.”하고 말하며 화약통에 화약을 더 넣어줬다.

“여분의 부싷돌은요?” 조나단은 자신도 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총에 들어있는 게 전부란다.” 주막주인 아저씨는 조나단을 유심히 살펴봤다.

“애야.” 그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꼭 갈 필요는 없단다. 모두 내버려 두고 뒤돌아 나가도 돼. 아무도 모를 거야. 신경도 안 쓸 거다. 그 남자도 말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가자고 했다 해서 네가 가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원래 뿔

5) 총의 아랫부분. 흔히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며 사격할 때 어깨에 받치는 데 쓴다.

6) 긴 원통 모양의 강철로 되어 있는, 총의 한 부분. 총알이 나가는 방향을 잡아 준다.

7) 총포에 화약을 재거나 총열 안을 청소할 때 쓰는 쇠꼬챙이.

8) 약실로부터 총구까지의 부분

지시하는 걸 좋아해서 말이지.”

조나단은 듣고 싶지 않아 그저 바닥만 내려다 봤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총을 만지작거렸다.

“그 남자를 잘 아는 거냐?” 주인이 물었다.

조나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인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몸은 내가 잘 챙겨야 한다.”

조나단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렇게 가고 싶다면, 어서 챙기려무나.” 아저씨가 팔을 내저으며 말했다. “어서.”

조나단은 너무 급하게 뒤를 돌아 나가던 나머지 문쪽에 개머리판이 부딪쳤다. 그 충격에 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모여 있던 사람들은 벌써 페닝턴로드를 따라 남쪽으로 가고 있었다. 말 위에 올라타 있는 상사는 이미 모퉁이를 지나치고 있었다. 조나단은 여기저기를 둘러 보았다. 그의 뒤에는 어두운 주막을 등지고 선 주막주인이 자신들을 보고 있었고, 또래 친구는 양 손으로 바닥을 짚고 종 받침대에 앉아있었다. 그도 이쪽을 보고 있었다.

조나단은 양손으로 총을 꼭 쥐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길을 따라 페닝턴 쪽으로 뛰어 내려갔다.

12:05

총은 무거웠다. 조나단은 다른 사람들처럼 총을 어깨 위에 걸치려고 했지만 무게 때문에 목이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슴께로 총을 잡아당겨 양손으로 들었다. 조나단은 혼자만 그런 식으로 총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싫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 탄약통과 뿔 화약통도 들어야했다. 통이 너무 길어서 계속 발에 걸렸다.

우리는 남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첫 번째 나무다리에 도착했지만 조나단은

여전히 뒤쳐져있었다. 말 위에 있던 상사는 앞쪽으로 또 다른 다리가 보이자 건너고 말고 멈추라고 명령했다. 조나단은 서둘러 사람들을 따라 잡았지만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앞부분은 듣지 못했다.

“... 일단 내 생각은 그렇소.” 상사가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었다.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소. 일단 최선을 다해 싸워본다면 그놈들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 적들은 아마 우리가 대항할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요.”

“적군이 몇이나 될 거라 생각하오?” 한 남자가 물었다.

우리의 바깥쪽에 서있던 조나단은 총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데 안도하며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 애썼다.

“스물에서 스물다섯 정도요.” 상사가 무심하게 답했다.

불안한 침묵이 이어졌다. 조나단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껴 주변을 둘러봤다.

“똥아빠야 열다섯이라 하지 않았소?” 누군가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소?” 상사가 무심하게 답했다. “잘못 말했나보오.”

적막이 감돌았다. 조나단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긴장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적군이 다섯 늘었다고 해서 돌아갈 거요?” 상사가 물었다.

조나단은 대답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살펴봤다. 다들 불안한 듯 서로 눈치만 보며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말을 꺼냈다. “대체 다들 어떻게 모이는 거요? 일전에 공안위원회에 대해 말하지 않았소? 당신 빼고 몇 명이나 동의한 거요?”

상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들에게 물어보시오.”라고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봐요” 누군가 따지듯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뽑은 게 아니요. 말 위에 앉았다고... 쟤장, 당신이 그럴 권한이 있는 건 아니요.”

“그럼 댁들이 직접 뽑아보시오.” 상사는 대답하고는 화난 듯 말에서 내려왔다.

“제발 좀 부탁하는데 서둘러주세요. 댁들 얘기가 길어질수록 적들은 더 가까이를 거요. 아니면 나대신 할 사람 있소?”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봤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아무도 상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럼 내가 수장이 되는 거요? 아무 말도 안하시니 그리 알아도 되겠소?” 상

사가 말했다.

조나단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보려 했지만 사람들은 뒤돌아 가버렸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다들 주눅 든 것처럼 보였다.

상사는 서둘러 말에 오르고는 말했다. “자, 그럼 우린 적들보다 먼저 록타운에 가는 거요. 나무 뒤에 매복해 있다가 기습하는 거요. 뭐, 당신들이 원한다면 말이오.”

전면전이 아닌 매복하여 기습한다는 작전에 사람들의 사기가 올랐다. 다들 긴장이 풀린 듯 했다. 몇몇은 활짝 웃기도 했다.

상사는 말을 돌려 다리 쪽으로 이동했다. 사람들은 힘차게 그 뒤를 따라갔다.

조나단도 서둘러 총을 챙겨 쫓아갔다. 조나단은 상사가 자신들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이 기뻐했다. 조나단에게 상사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다.

12:30

두 번째 다리를 건너자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이동속도는 느려졌고 몇몇은 가쁜 숨을 들이쉬었다. 조나단은 겨우 그들을 따라잡았다.

조나단은 잠시 아버지 친구와 나란히 걸었다. 덩치가 있는 그는 이미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벗겨진 머리가 땀으로 반짝였다. 그의 희끗한 앞머리에서는 땀이 똑똑 흘러내렸다.

“무슨 일이에요?” 조나단이 물었다. 그는 키가 큰 어른들의 발걸음을 맞추려 한 걸음 반씩 걸어야 했다.

그 남자는 조나단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획 쳐다봤다. 그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도리어 조나단에게 물었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

“싸우러 가죠. 적군에 대해 들었어요. 열다섯에서 스무 명 정도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죠? 뭘 하려는 걸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남자는 조나단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러고는 물었다. “못 들었니?”

“말씀드린 정도 만요.”

남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계속 걸음을 옮겼다. 조나단은 대답을 기대하며 열심히 쫓아갔다. 갑자기 아저씨가 물었다. “대체 왜 따라온 거냐?”

“네?”

“왜 따라온 거냐고 물었다.”

조나단은 적절한 말을 찾았다. “오고 싶어서요.”

“아버지도 아시니? 허락하시던?”

“물론이죠.” 조나단은 웅얼거리며 답했다.

“다리는 어떠시니?”

“여전히 안 좋으세요.”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지. 근데 진짜 아버지가 허락하신거니?”

조나단은 불편한 마음에 아저씨가 앞서 가도록 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조나단은 아무래도 끝에서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늦췄다. 그는 걸음을 옮기며 아버지 친구분이 자신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조나단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마 그 아저씨도 모르는 게 아닐까.

12:40

그들은 길이 산마루 끝에 닿자 다시 멈춰 섰다. 날씨는 더 덥고 습해졌다. 조나단은 유심히 하늘을 살펴보았다. 서쪽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리 먼 길을 오진 않았지만 몇몇은 지친 듯 바닥에 널브러졌다. 또 몇몇은 모자를 벗고 나무 옆에 대자로 눕기도 했다. 부채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상사는 긴장이 역력한 모습으로 말 위에 앉아 길 너머를 주시했다.

조나단은 나무 옆에서 쉬었다. 그의 다리는 괜찮았지만 팔이 아팠다. 그는 나무 옆에 총을 세워두고 적군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리 한쪽 너머에는 굽이쳐 흐르는 작은 계곡이 있었고 개울에 물을 대는 연못 두 개가 있었다.

연못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었고 반마일 쯤 너머로는 높은 언덕이 보였다. 남쪽으로는 키가 크고 울창한 나무숲이 보였다. 남쪽으로 내리막길이 이어지다가 다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리 멀지않은 곳에 가장 높게 보이는 지점이 록타운이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싸울 곳이었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 구름을 가늠해봤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큰 폭풍이었다. 그는 다시 가만히 앞을 바라봤다. 적막이 감돌았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다. 바람 한 점 없었다. 나무에는 새로 돌아난 푸른 잎사귀가 축 늘어져 있었다. 새들은 하늘 높이 날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 조용함이 불편했다. 새들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았다. 새들만이 자신이 모르는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조나단의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조나단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 친구분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 무서웠다. 그는 주목받고 싶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을 집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른다. 조나단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기다리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 있었다.

12:50

“상사”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스나이더타운 사람들은 어디 있소?”

조나단은 스나이더타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곳은 동쪽으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조나단은 최근 몇 달간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온 적이 없었다.

“그들도 합류하는 거요?” 누군가 덧붙여 물었다.

조나단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도 함께 싸워야 공평한 거 아니겠소?” 다른 누군가 덧붙여 말했다.

상사는 천천히 움직이더니 굳은 표정으로 길 아래를 응시했다. 몇몇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다.

“갈 거요 말 거요?” 상사가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전쟁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소?” 누군가 말했다.

그때 상사가 뒤를 돌아 차분히 물었다. “이보시오. 적군이 몰려오면 우리 집뿐 아니라 댁들도 피해 받는 거 아니오?”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상사는 말을 움직여 앞으로 나아갔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조나단 역시 따라갔다.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 질문을 했던 남자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떠났을 때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1:00

조나단은 행군을 이어가자 기분이 나아졌다. 그는 휘파람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나단은 앞에 있던 누군가가 화난 얼굴로 뒤를 돌아 그를 노려보자 입을 다물었다. 다시 한 번 적막이 그를 짓눌렀다.

1:05

얼마간의 내리막길을 지나자 오르막길이 시작됐다. 다들 걸음이 느려졌다. 조나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 한 가운데에서 걷게 됐다. 무슨 대화라도 하길 바랐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자네 아내는, 괜찮은가?” 그때 한 남자가 다른 이에게 물었다.

조나단은 그 남자를 알았다. 최근 자신의 동네로 이사 온 프랑스인 중 한명이었다. 그는 억양이 특이했다.

“괜찮아.”하고 대답했다.

“다행이네.” 프랑스 남자가 말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발을 끌며 걷는 소리뿐이었다. 조나단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얼마나 이 공허한 시간이 지나야 전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1:30

주변에 우물이 있는 록타운에는 길옆으로 여섯 채의 집이 있었다. 조나단은 전에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는지 생각나지 않았다. 익숙하긴 했지만 사실 근방의 집들이 다 비슷비슷한 모양이었다.

조나단은 ‘록타운’이라는 이름이 의아했다. 바위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채석장이라도 있는 걸까 궁금했다. 조나단은 아버지가 몇 달 전 이곳에 왔었던 기억이 났다. 그 이유를 생각해내려 했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기억나지 않은 상황에 짜증이 났다.

그들은 우물 앞에 멈춰 섰다. 한 여성이 물을 퍼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 하며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녀를 불편하게 하는 건 분명해 보였다.

조나단은 호기심이 생겨 그녀를 보았고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어떻게 그녀는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태연할 수 있을까?

“어서 서두르시오.” 상사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말 위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남자들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점점 불안해했다. “저기” 마침내 그녀가 물 양동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드세요.”

프랑스 아저씨가 앞으로 나오더니 이마를 만지며 말했다. “Merci” 양동이를 양손으로 받아들여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는 옆 사람에게 건네줬다. 돌아가며 다들 물을 마셨다. 하지만 조나단에게 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나단은 물을 달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소심했다.

여자는 남자들이 양동이를 돌려가며 물을 마시는 걸 보더니 말을 꺼냈다. “어디로 가세요?”

조나단은 그 질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모두가 곧 일어날 전투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적군이 이리로 오고 있소.” 상사가 말했다.

“여기로요?” 그녀는 놀란 듯 비명 지르듯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소.”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 했다. “어느 쪽에서 오는데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녀는 한 손을 목 언저리에 놓았다.

“폐닝턴에서 올라오고 있소.”

그녀는 모두가 놀랄 만큼 재빠르게 치마를 정리하더니 뒤를 돌아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우스워 모두가 웃었다. 조나단은 대체 뭐가 재밌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재미나긴 했다.

상사만 웃지 않았다. “이제 갑시다.” 그가 말했다.

사람들은 웃고 나서인지 긴장이 풀린 거 같았다. 다들 겁먹은 여자의 모습을 보자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다. 조나단은 자신은 저 여자처럼 겁먹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이동할 준비가 끝나자 여자가 달아난 집을 쳐다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어린 두 아이 그리고 노인 한 명과 함께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서둘러 창문에 나무 덧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광하고 닫히더니 집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한 남자가 어떠한 경고의 말도 없이 총을 들어 허공으로 발사했다.

모두가 까무러쳤다.

상사가 붉으락푸르락한 얼굴로 뒤돌았다.

총을 쏜 남자가 활짝 웃었다.

“제기랄 당신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릴 참이오?” 상사가 소리쳤다.

웃고 있던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고서야 다른 이들도 화가 나 있는 걸 알아차렸다.

“장난 좀 친 거요.” 그가 웃음기를 거두고 말했다.

“바보 같은!” 상사가 뻑 소리를 질렀다.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 그럼 젠장 모두 서두릅시다. 이미 늦었소.”라고 말하며 상사는 자신의 말

옆구리를 찼다. 모두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사라졌고 시무룩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조나단은 속상한 마음이 들어 얼마간 뒤에서 걸었다. 그는 뒤를 돌아 록타운의 집들을 봤다. 몇몇 집에서 사람들이 나왔다. 그들은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 조나단은 다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저들이 나를 보고 있어. 내가 군인이기 때문이지’ 라며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조나단은 갑자기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걸 깨닫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2:05

록타운에서 남쪽으로 0.5마일 정도 가면 그 부근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있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산마루로 걸어갔다. 상사는 선두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나아갔다. 정상에 이르자 상사가 말에서 내렸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다.

2:10

몇몇은 자리에 앉았고 몇몇은 드러누웠다. 한 무리는 휴대용 술병을 가져와 마시고 있었다. 조나단은 록타운의 우물에서 물을 좀 마실 걸 후회했다. 그는 목이 말랐다.

몇몇 사람들은 상사가 서 있는 곳으로 가더니 그와 나란히 서서 점차 완만한 경사가 이어지는 길을 살펴봤다.

넓은 계곡을 가로질러 길이 이어졌고 한 때 물이 흐르던 곳이 말라 길이 된 것처럼 보였다. 길 양쪽으로는 마치 울타리처럼 나무가 줄지어 이어졌다. 길이 굽이쳐 있어서 기껏해야 4분의 1마일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았다.

조나단은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봤다. 두터운 구름이 높게 떠있었다. 회색빛 먹구름이 두텁게 깔려있었다. 조나단은 폭우가 쏟아진다면 총 쏘기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상사와 남자들은 구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언덕 너머까지 이어지는 길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여기서 적군을 기다릴 거요.” 상사가 말했다.

“밑에서 위로 올라와야 할 테니.” 한 남자가 동의하며 말했다.

“올라오면서 쏘다 보면 총알이 머리 뒤로 넘어가 버릴 테지.” 그가 덧붙여 말했다.

모두들 그 점을 생각하고 있었다.

“매복해서 습격한다 하지 않았소?” 조나단이 얘기를 나누려 했던 아버지 친구분이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긴장한 것 같았다.

“그리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아무렴 그래야지.” 또 다른 남자가 서둘러 동의했다. “그게 훨씬 괜찮은 방법일거요. 그렇고말고.”

“숨을 곳이 없소. 너무 허허벌판이요. 방어막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소.” 상사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답했다.

“나무가 있지 않소.” 누군가 제안했다.

“여기 소총⁹⁾ 가진 사람 있소?” 상사가 둘러보며 물었다. “그냥 머스킷 말고는 없는 거 아니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는 고개를 돌리고는 폭풍우를 봤다. “만약 바람까지 분다면 엉뚱한 데나 쏘겠지. 여기서 태세를 갖춰야 하오.” 그는 단호했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반대했다. “아니, 그런 건 개의치 않겠소.” 그는 주의를 둘러보며 다른 이들도 동의해주길 바랐다. “우린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소. 우린 잘 할 수 있소. 하지만 저자들만큼은 아니요. 그는 헤센이 나타날 길을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가 말하고 나자 모두가 긴장한 듯 침묵이 이어졌다. 그때 누군가 말을 꺼냈다. “전 여기서 대기하겠소. 다른 방법은 모르겠소.” 록타운에서 장난으로 총을 쏘던 남자였다.

상사는 모자를 벗고 머리를 뒤로 넘기며 물었다. “모두 동의하는 거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9) 라이플총, 비교적 원거리의 점표적을 명중시키는 데에 쓰인다.

“적군이 언제 올 거라 생각하오?” 누군가 물었다.

“머지않아 오겠지.”

“스나이더타운 사람들은 어디 있소. 상사! 그걸 알고 싶소.” 길 옆쪽에 있던 누군가 외쳤다.

상사는 계속 길 아래를 주시했다.

“그들도 와야 할 거요. 당신과 그자들이 모든 걸 시작했소.”

상사는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나단은 처음으로 멀리서 울리는 드럼소리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들었다. 드럼소리는 일정하고 단조롭게 들렸다. 그 소리 말고도 귀를 찌를 듯 끼익하는 파이프¹⁰⁾ 소리도 들렸다.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남자들은 천천히 일어섰다.

“곧 오겠군.” 누군가 말했다.

2:30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다들 드럼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 소리가 성난 시계처럼 크고 일정하게 울렸다. 그러더니 파이프 소리가 곡조를 띄기 시작했다. 찌를 듯한 소리와 현을 튕기는 소리가 불안정하게 이어졌다. 조나단은 긴장으로 척추부터 뒷목까지 팽팽해졌다. 그가 기침을 하려는 순간 자신이 지금껏 숨을 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나단은 주위를 둘러봤다. 다른 사람들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지만 정확히 뭘 보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 남자가 손으로 턱을 감싸더니 손가락으로 턱 주변을 쓰다듬기도 하고 입술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그 때문에 얼굴이 기괴하게 보였다. 또 다른 남자는 초조한 듯 계속 입술을 훑었다.

상사는 마치 파이프와 드럼 소리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듯 온 신경을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다.

10) 세로로 부는 작은 플루트. 1600년대부터 군대 및 행렬 음악에 쓰였다.

“대열을 맞추시오. 대열을” 상사는 정신을 차린 듯 갑자기 소리쳤다. “이쪽으로 열을 맞추시오. 7명은 앞쪽에! 키 작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머지는 뒤로! 키 큰 사람들은 뒤로! 쟁장. 모두 서두르시오.”

사람들은 미친 듯이 이리저리 달리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었고 그때 누군가 등을 찰싹 때렸다.

“뭐 하는 거야. 움직여.” 상사가 화난 목소리로 명령했다.

조나단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리자 그는 손을 뻗어 조나단의 어깨를 잡고는 앞으로 떠밀었다. “앞줄이다!” 그가 명령했다. “앞줄!”

조나단은 상사가 떠민 그 자리에 서있었다.

조나단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 상사는 자신의 말고삐를 잡고 소리치고 명령하면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보였다.

“여기, 여기! 아니 멍청한. 저기란 말이오! 자리를 지키시오. 쟁장, 저쪽! 아니, 저쪽 말이오! 두 걸음 뒤로 오시오! 열을 맞추시오! 그쪽이 아니오! 정렬하십시오. 이런 멍청한!”

조나단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사람들이 조나단의 발을 밟아댔다. 상사는 말 위에 올라가려다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들 멍하니 보기만할 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상사는 혼자서 다시 말 위로 올라갔다. 그는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말을 이리저리 끌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불안하고 가쁜 숨을 내쉬었다. 멀리서는 드림 소리가 끊임 없이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거기! 좋아. 자, 모두 총을 장전하십시오. 제발, 총을 준비하란 말이오!” 상사가 소리쳤다.

곳곳에서 툭툭하고 총을 내려놓는 소리, 개머리판을 땅에 박는 소리, 가죽으로 된 탄약 가방을 여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거기 너! 너도 총 장전해. 이런 바보 같은, 총을 장전하란 말이다!”

2:35

조나단은 서둘러 총을 땅에 세워 놓고 한 손으로 총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탄약 가방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잠금장치가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총 집어 멍청아!” 누군가 소리쳤다.

당황한 조나단은 허리를 굽혀 총을 들어올렸다. 그는 팔꿈치 안쪽에 총을 끼워 놓고 허둥지둥 양손으로 탄약 가방을 껍 잡아당겨 열었다. 나무결쇠가 부러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탄약 하나를 집어 올렸다. 갈색의 까슬까슬한 종이가 튜브처럼 말려 있었고 한쪽 끝은 심지처럼 단단히 말려있었다. 안에는 화약 조금과 납공 하나가 담겨있었다.

그는 이로 종이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 번 더 세게 잡아당기자 종이 확 하고 찢어져 버렸다. 그는 입에서 화약 맛이 느껴져 튀하고 뱉어냈다.

그는 덜덜 손을 떨며 찢어진 종이에서 탄약이 쏟아지지 않도록 종이를 들어올렸다. 총을 잘 잡아보려 했지만 총열이 너무 높았다. 까치발을 들고서야 탄약을 담을 수 있었다. 납공에 종이를 구겨 뭉쳐 총구로 밀어 넣었다.

그는 허둥지둥 총신 아래에 있는 꽃을대를 잡아당겨 뺐다. 손을 높이 뻗어 꽃을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납공을 총열 안으로 밀어 넣었다. 납공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까치발을 들고 손을 쭉 뻗어 납공을 다시 밀어 넣었다. 너무 세게 밀면 탄약가루가 터져 불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했다.

조나단은 꽃을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는 순간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가 꽃을대를 집어 올리려고 허리를 숙이자 총구가 바닥을 향했다. 오싹하게도 납공이 굴러 떨어졌다. 정신없이 확 집어 올렸고 그 순간에도 그는 아무도 이 모습을 보지 않았길 바랐다. 조나단은 재빨리 납공을 다시 총구에 넣었다.

그는 다시 허리를 숙였다. 이번에는 총구가 위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납공은 안에 잘 들어가 있었다. 꽃을대를 잡아 다시 한 번 총구에 밀어 넣고는 납공이 딱 조이게 눌렀다. 다시 꽃을대를 꺼내 소켓에 잘 끼웠다.

장전한 총을 총구가 위쪽을 향하게 들고 허리에 차고 있던 빨 화약통을 앞쪽으로 가져왔다. 이빨로 뚜껑을 열었다. 공이치기¹¹⁾와 부싯돌 아래 있는 화약 접

11) 격발 장치의 하나이며, 방아쇠를 당기면 용수철이 늘어나 공이를 쳐서 뇌관을 폭발하게 하는 부분이다.

시¹²⁾에 신중히 화약을 흘려 넣고 덮개를 닫았다. 그는 양손을 사용해 총을 위로 들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다.

2:40

조나단은 온 몸에서 땀이 났다. 그는 자신의 느리고 서툰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았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봤다. 준비가 끝난 남자들은 결연한 얼굴을 하고서 길 아래를 내려다봤다. 한 남자가 혀로 입술을 핥고 서둘러 입을 닦았다. 계속 헛기침을 하는 남자도 있었고 눈을 비비는 남자도 있었다.

바로 그때 조나단은 드럼소리와 파이프 소리가 너무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획 돌렸다. 키 큰 나무 너머 길 끝에서는 적군이 진군하고 있었다.

2:41

조나단은 적군이 진군하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넋을 잃고 바라봤다. 30명의 적군이 3열중대로 발맞춰 움직였다. 그들은 발을 높이 들어 절도 있게 움직였다.

언덕 아래에 있어도 적군은 거대해 보였다. 그는 그렇게 거대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질게 깔린 먹구름 아래 그들의 금빛으로 장식된 모자가 밝게 빛났다. 대부분 턱수염을 풍성하게 길렀다. 파란색 상의는 빨간 소매와 하얀 단추로 장식되어 있었고 상의 안에는 어두운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빨간 색과 하얀색 줄무늬 바지를 입고 새까만 부츠를 신었다. 모두 허리에 총검을 차고 있었다. 가슴께에는 하얀색 띠를 엑스자로 둘렀다. 각각 자신의 왼편에 긴 총을 들고 있었다.

“헤센이야. 헤센이라고.” 조나단 옆에 있던 남자가 말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

12) 기폭제를 담은 용기

앉았다.

2:43

조나단은, 사람들에게 숨 막히는 공포감이 엄습하는 것을 보았고 그로 인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감으로 동요하는 걸 알 수 있었다.

헤센, 룡아일랜드의 잔인한 살인자들...

“너무 많아...” 오른편에서 누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헤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용병들...

“조용히 하시오!” 상사가 소리를 죽이며 으르렁댔다. “말하지 말고 자리나 지키시오!”

“저들은 영국 보병들이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저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보이는 거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수류탄이 보이는 거요? 다들 저자들이 보이는 거요? 보병들이오.”

조나단이 보고 있는 동안에도 적군은 드럼소리에 맞춰 계속 전진했다. 그는 누가 연주를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었지만 소년들일 거라고 확신했다. 아마 그들이 자신보다 어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그들을 보고 싶었고 그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리기를 바랐다.

헤센은 계속 전진 했다.

“자리를 지키시오! 대열을 맞추시오!” 상사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총을 들고 밑에서 곧장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적군을 겨누고 있었다.

“내가 말할 때까지 가만있으시오.” 상사가 소리쳤다. “총알을 아끼시오. 적군은 아직 멀리 있소.”

조나단은 진군해오는 적군에게서 눈을 떼 수 없었다. 적군은 이제 연주를 멈추고 너무나 흔들림 없이 진격해 오고 있었고 그래서 조나단은 저들이 길이 막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그들은 대형을 갖추고 오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우왕좌왕하며 진군을 멈췄고 조

나단은 그 모습을 보며 잠깐이지만 긴장이 풀렸다.

말위에 앉아 있던 헤센 장교는 천천히 다가오며 언덕 위에 있는 자신들을 올려다봤다.

조나단은 그의 총을 좀 더 높이 들어 올렸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 친구분이 거기에 있었다.

“총구를 낮추시오!” 상사가 외쳤다. “안 그러면 총알이 위로 가게 될 거요!”

조나단은 자신의 총을 쳐다봤다. 그 순간 총이 가볍게 느껴졌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훑어봤다. 그들은 손가락을 움켜쥐다 풀고 다시 움켜쥐다 풀고를 반복했다.

“상사. 젠장, 당신네 스나이더타운 위원회 사람들은 어디 있는 거요?” 누군가 말했다. “왜 오지 않는 거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요?”

선두에 서 있던 상사는 헤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자신의 편에게서 등을 진 채 침묵을 지켰다. 상사가 타고 있던 말은 씩씩거리며 불안한 듯 이리저리 움직였다.

조나단은 입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고 입안이 텅텅했다. 그는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해야 할까? 누구에게 말해야 싫어하지 않을까? 그는 그 어느 때 보라도 목이 마르다는 생각을 하며 적당한 사람을 찾아보려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가 물어보기에는 사람들은 너무도 집중한 채 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감히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길 아래에 있던 헤센은 아직도 가만히 서있었다. 말 위에 있는 헤센 장교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조나단은 따가닥따가닥 말발굽 소리를 들었다. 장교의 콧수염이 펄럭거렸다. 그는 총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날카로운 은빛 검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계속 언덕 위를 올려다봤다.

갑자기 조나단은 자신이 지금까지 적군을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토리를 본적은 있었지만 그들은 가증스럽게도 미국인들이었다. 지금 그가 눈앞서 보고 있는 자들은 말 그대로 진짜 적이었고 미국인이 아닌 끔찍한 이방인들, 잔인한 독일인들이었다.

헤센장교는 길 아래에서 자신의 칼을 휘두르며 부하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다시 드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고음의 파이프 소리도 들렸다. 목 뒤에서 서

늘한 바람이 불었고 흔들리는 총은 무겁게 느껴졌다.

“흠어지시오.” 상사가 명령했다. “모여 있지 마시오.”

모두 이동했다.

“내가 신호를 주면 첫 번째 줄 발사하고 두 번째 줄은 앞으로 오시오. 첫째 줄은 뒤로 물러나서 다시 장전하시오 이해했소? 계군들 1분에 두 번이요. 두 번!”

조나단은 심장이 내려앉았다. 1분에 두 번이라니. 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연습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했다.

조나단은 적군의 발자국 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헤센은 하나가 되어 빨강고 하얀 바지를 입은 다리를 높이 들고 다시 한 번 진격했다. 그들의 총은 금빛 모자 옆까지 솟아올라 있었다.

조나단은 그 광경을 보자 어지러웠다. 그는 휘청거렸다. 총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준비됐니?” 콧가에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다. 프랑스 아저씨였다. 그는 조나단의 옆에 서있었다.

조나단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만만치 않은 상대야. 확실히” 프랑스 아저씨가 말했다.

“침착하시오 계군들. 침착하시오.” 상사가 한쪽으로 물러서며 외쳤다. “기억하시오. 폭풍이 몰려오고 있소. 비가 오면 약실¹³⁾을 덮어 총이 젖지 않도록 하시오. 적군이 50야드 이내로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계군들 50야드요, 50야드!”

조나단은 50야드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다. ‘몇 발자국일까? 어느 지점일까? 누군가 말해주지 않을까?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여기서 제일 어리다는 걸 모르는 걸까?’ 조나단은 속으로 생각했다.

드럼 소리를 따라 조나단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적군은 같은 소리에 맞춰 진군했다. 그는 자신의 심장소리가 멈추면 그들의 진격도 멈출까 궁금했다.

조나단은 그들을 보며 대체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여 누구도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힘차게 발을 들어 올리며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했다.

13) 소총에 탄환이 삽입되는 곳.

헤센 장교가 뭐라고 외쳤다.

“뭐라고 했소?” 함께 있던 누군가 물었다.

“모르겠소.”

“뭐라던가요?”

“준비하시오!” 상사가 외쳤다.

조나단은 다리 뒤쪽이 경직되는 것을 느끼며 총을 끌어당겨 올렸다. 그는 총구를 따라 내려다보며 아래를 조준하라던 말을 기억해냈지만 공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의 총이 아래위, 좌우로 흔들거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총을 꼭 잡고 있어야 했다. 그의 등이 아파왔다. 헤센군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를 조준해야 한다면 대체 누구를 해야 될까?

그는 딸깍하는 소리를 들었다. 프랑스 아저씨가 잠금장치를 뒤로 당겼다. 조나단은 한 손을 총에서 떼고 똑같이 해보려 했다. 총이 위험하게 흔들거렸다. 그는 겨우 잠금장치를 잡아 당겼다. 딸깍 소리가 났다.

“침착하시오!” 상사가 소리쳤다. “침착해!” 조나단은 상사가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엑스 자로 하얀 띠가 둘러진 파란 상의와 큰 노란 모자를 봤다. 이제 적군과의 거리가 겨우 200피트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조나단은 저들이 어째서 여기 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거지? 그는 긴장으로 털이 곤두서고 배가 아팠다.

헤센 장교는 조나단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했다. 갑자기 아무런 신호도 없이 헤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오른쪽으로 몇몇은 왼쪽으로 움직이더니 순식간에 한 줄에 열 명씩 서서 진격의 벽을 만들어냈다.

“거의 다 왔소!” 상사가 외쳤다.

헤센 장교가 또 소리쳤다. 그가 명령하자마자 군인들이 총을 아래로 내렸다. 그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재빨리 총검을 총에 끼웠고 번쩍이는 칼날을 미군들을 향해 겨눴다.

조나단은 침을 삼키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목이 갑갑하고 타는 거 같았다. 그는 목이 너무 말랐다.

조나단의 편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 누군가 총을 쏜 것이다.

상사가 미친 듯이 욱을 해댔다. 그의 말은 놀라 뒷발로 섰다.

누군가 또 총을 쏘았다.

조나단의 마음속에서 극도의 불안이 일었다. 그의 팔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조나단은 자신도 모르게 방아쇠를 당겼다. 불꽃이 튀고 폭발음이 나더니 조나단은 반동에 뒤로 밀려났고 몸이 반쯤 돌아갔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총을 쏘아댔다. 조나단의 귓가로 폭발음이 끊임없이 들렸고 마치 빠른 주먹에 맞은 것 같았다.

“저리 비켜!” 누군가 조나단을 확 밀치며 소리쳤다. 그는 누군가 밀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거의 넘어질 뻔 했다. 이번엔 조나단의 앞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누군가 울부짖었다. “맙소사 주여.”

그의 귀가 멍하고 울렸다. 그의 눈은 따끔거렸다. 사방에 연기가 자욱했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조나단은 다시 총을 장전해서 쏘야한다는 걸 알았지만 혼란스러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왜 이렇게 일이 빨리 진행되는 거지? 불공평했다. 연기가 더욱더 짙어졌다. 조나단은 상황을 보려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방에서 총을 쏘고 있었다. 가끔씩 한 번에 두발씩 쏘는 소리도 들렸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무서운 적막이 감돌더니 다시 연기사이로 노란 불꽃이 터졌다. 조나단은 그 폭발음 속에서 상사의 격분한 목소리를 들었다. “열을 맞추시오! 자리를 지켜! 명령이다, 멍청이들아! 명령이야!”

연기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잠시 걷혔다. 아직 헤센과는 거리가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대열을 유지한 채 정면을 향해 총을 들고 있었으며 그들의 드럼 소리와 귀를 찌르는 파이프 소리 역시 계속됐다.

2:50

조나단은 탄약 가방에 손을 넣어 탄약을 꺼내고는 꼬여있는 종이 끝을 물어뜯었다. 그는 서둘러 다시 총을 장전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을 생각하

려 했지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총을 다시 한 번 장전하고 들어올렸다. 그는 잠금장치를 풀고 주위를 둘러보며 발사할 자세를 갖췄다. 하지만 그는 어디로 쏘야할지 몰라 혼란스러워 하더니 자리에 멈춰 섰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이어졌다. 바람이 이는 것처럼 보였다. 근방에서 크고 묵직한 소리가 났는데 마치 누군가 숨을 “헉”하고 들이 쉬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더니 누군가 조나단을 스치며 바닥에 쓰러졌다. 조나단은 옆으로 비켜섰다. 아버지 친구가 다리는 몸 아래에서 뒤편 채 눈은 크게 뜨고 팔을 대자로 뻗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고 그의 땀에 젖은 셔츠는 피로 뒤덮여 있었다.

“대열을 갖춰! 대열!” 상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조나단은 쓰러진 아버지 친구 옆에 무릎을 꿇었다.

총소리가 여기저기서 계속 이어졌다.

조나단은 남자의 얼굴에 손을 올려 떨리는 손길로 쓰다듬었다. 부드럽지만 축축하고 따뜻한 살결이 느껴졌다.

조나단은 총으로 손을 뻗었다. 그는 생각했던 자리에 총이 없자 몸을 돌려 총을 찾았다. 그는 총을 당기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밑에 총이 깔려 있었다. 바로 프랑스 아저씨였다.

조나단은 가까이 가기 무서워 총을 그냥 내버려 둘까 생각했다. 그는 이내 생각을 고쳐 총을 가져와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쳤다. 조나단은 자신의 총이 아니니 돌려줘야 한다고 되뇌었다. 그게 책임이자 의무이고 또 다짐한 말은 지켜야 했다.

프랑스 아저씨는 몸을 이상하게 비틀며 팔 다리를 떨었다. 그는 머리를 뒤로 젖히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졌다.

조나단은 두려움이 점점 커졌다. 그는 총을 들고 일어섰다. 길에는 연기가 걷혔다. 헤센은 똑바로 서서 총을 높이 겨누고 있었다. 그때 헤센 중 한 명이 총을 떨어뜨리며 앞으로 고꾸라졌고 그가 쓰고 있던 밝은 금색의 모자가 바닥에 탕탕 튀기며 떨어졌다.

상사가 머스킷 총을 들고 다시 장전했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조나단은 다른 아저씨들을 찾으려했지만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조나단은 주변을 빙 둘러봤다. 그는 뒤에서 서둘러 달아나고 있는 그들을 발견했다.

헤센이 뭐라 소리쳤다. 조나단은 다시 뒤를 돌아봤다. 헤센은 총을 내리고 총검을 앞으로 겨누어 돌격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조나단이 서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빠르게 돌격하고 있었다.

조나단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는 자신이 그곳에 혼자 서있으며 적군이 모두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3:01

조나단은 달아나다 발을 헛디더 넘어졌고 무릎을 다쳤다. 그는 총을 지팡이 삼아 단번에 일어서 뒤를 돌아 봤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총성이 날아들었다. 그는 가만히 서있는 채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상사는? 왜 나를 기다리지 않은 거지?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지?

조나단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반쯤 돌아 세 명의 헤센이 자신을 향해 돌격하고 있었다.

“Halt!” 누군가 소리쳤다.

그들 중 한명이 멈춰 서서 총을 쏘다. 불꽃이 번쩍하고 연기가 났고 딱딱한 총성이 들렸다. 조나단은 다시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너무 무서워 온 신경이 마비되고 사지가 떨렸다. 그는 감히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었다. 그가 살 수 있는 곳은 나무로 뒤덮인 숲밖에 없었기에 그곳으로 돌진했다. 몇 번이고 무거운 총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 했지만 그는 있는 힘껏 움켜잡았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것뿐이다 라고 생각했다.

고함과 총성이 조나단의 뒤를 따랐고 가지와 덩굴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옆구리가 너무 아팠다. 그는 탄약통과 화약통이 계속 무릎을 치자 바닥에 내던졌다. 그는 나무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흐릿한 초록색뿐이었다. 그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3:05

조나단은 바닥에 누운 채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지쳐 그 자리에 가만있을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다. 바람을 타고 파이프 소리가 울렸다. 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끝내 숲의 소리만 들렸다. 머지않아 그 소리도 찾아들더니 정적이 감돌았다.

3:16

고요함 속에서 조나단이 들을 수 있는 건 자신의 숨소리뿐이었다. 그는 처음에는 짧게 헐떡였다. 그는 점차 호흡이 차분해지고 이내 고통을 느꼈고 고통은 점점 커지더니 몸 전체로 퍼졌다.

조나단은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훌쩍임이었다. 울음이 점차 견잡을 수 없이 커졌고 조나단은 온 힘을 다해 울었다.

그는 엉엉 울고 나니 참을 수 없는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앞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너무 아팠다.

3:30

조나단은 너무 지쳐 이제 울 힘도 없었다. 그는 돌아눕다가 자신이 아직도 총을 쥐고 있는 걸 깨달았다. 그는 천천히 총을 손에서 놓으려 했지만 몸에 각인된 듯 손가락으로 총을 꼭 움켜쥐었다.

조나단은 등을 대고 누워 머리 위 엷혀있는 나무들을 바라봤다. 저 높이 걸려 있는 나뭇잎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조나단은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3:35

조나단은 몸을 일으켜 앉아 주변을 둘러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했다. 그는 자신이 어느 쪽에서 달려왔는지 생각해내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그는 무릎을 잡아당겨 팔을 포개어 뺨을 기댔다. 그는 무릎을 꼭 안고는 훌쩍이며 앞뒤로 몸을 흔들었다.

그의 소매는 찢겨져 있었다. 그의 신발에는 핏자국이 있었다. 조나단은 핏자국을 만져봤다. 피는 아직 끈적거렸다. 그는 그게 누구의 피일까 궁금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조나단이 작게 내뿜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한편으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죽는 다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다.

3:38

조나단은 얼룩진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그는 코를 풀었다. 그는 몸을 움직여 일어서 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나무를 잡았다. 그는 어지러움을 떨쳐내고 겨우 일어섰다. 그는 하얀 점과 밝은 섬광 말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눈을 떴다.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미 날은 어두웠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지금이 몇 시인지 몇 시간이나 흘렀는지 알고 싶었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 발에 총이 걸렸다. 그는 몸을 숙여 총을 들어올렸다. 그는 잠시 총을 손에 쥐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천천히 잠금장치를 밀었다. 텅 빈 듯 텅 소리가 나며 닫혔다.

그는 오줌을 똥다. 그런 후 그는 뒤를 돌아 어느 쪽으로 갈지 생각했다. 지금 그가 가장 하고 싶은 건 달아나는 것이었다. 가능한 한 멀리 가서 돌아오지 않고

싶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소리에 집중했다. 그는 황급히 뒤를 돌아 멀리 않은 곳에 서있는 한 명의 헤센을 발견했다.

3:47

그 보병은 조나단과 불과 3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의 경직된 채 서있는 모습이 나뭇가지에 가려 군데군데 보였다. 그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듯 이리저리 고개를 돌렸다.

조나단은 덤불 뒤에 숨어 그를 유심히 관찰했다. 조나단은 그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조나단은 가만히 그를 응시하며 지금 상황을 이해해보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헤센을 관찰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헤센의 큰 키, 밝은색 군복, 금색 모자에 가려진 창백한 얼굴. 총과 총검을 양손으로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힘이 무척이나 세보였다. 그는 너무 거대해 보였다.

대체 왜 그는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 내가 어쨌다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붙잡힌 걸까? 나만 남은 걸까? 다른 사람들은 왜 도망간 거지? 도망가긴 한 걸까? 나만 살아남았을까? 조나단은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키 큰 헤센이 조나단 쪽으로 몇 발자국 움직였다. 그는 잠시 멈추고는 이리저리 둘러봤다. 그러다가 조나단에게서 등을 지고 가는 듯하더니 다시 돌아섰다.

조나단은 20피트쯤 떨어진 다른 곳에서 딸각딸각하는 소리를 들었다. 조나단은 놀라서 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또 다른 헤센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군인보다는 작았지만 덩수룩하게 턱수염을 길러 더욱 험상궂게 보였다. 두 번째 군인 역시 나이가 들어보였다.

“*Siehst du was?*” 키 큰 군인이 외쳤다.

조나단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이였다. 말은 간단명료했지만 그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시 한 번 조나단은 달아나야한다고 자신을 다그쳤다. 그는 천천히 소리 내지 않고 자세를 더욱 낮추어 발밑에 총을 내려놓았다. 그는 뒤꿈치를 들어 뒤를 돌

아보며 갈 길을 찾았다.

바로 그 순간 조나단은 세 번째 헤센을 발견했다. 그는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3:50

“*Er erschießt uns, wenn wir nicht vorsichtig sind.*” 세 번째 군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랗게 수염이 열게 나있었고 다른 두 군인보다 어려 보였다.

“*Weg von hier.*” 나이 든 군인이 말했다. “*Es ist blöd und gefährlich. Wir finden ihn nie.*”

조나단은 눈을 감고 무슨 말이든 들어보려 했다.

“*Noch ein Paar Minuten.*” 키 큰 군인이 말했다.

“*Ich hab's satt.*” 나이 든 군인이 말했다.

조나단은 낮게 몸을 웅크리고는 헤센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그들은 조나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인 듯 했다.

젊은 헤센이 다시 뭐라고 말했지만 조나단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조나단은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 그때 갑자기 조나단은 그들이 자신을 죽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조나단은 뛰쳐나가며 외쳤다. “쏘지 마세요!”

“*Mein Gott!*” 키 큰 군인이 소리쳤다. “*Vor unseren Augen!*”

“*Er ist nur ein Junge.*” 젊은 헤센이 말했다.

조나단은 머리 위로 손을 높이 들고는 울며 말했다. “저를 죽이지 마세요. 제발요!”

그들은 조나단을 향해 총을 겨눴다. 나이든 군인이 뭐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는 것처럼 이리 저리 둘러봤다. 그들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만족한 듯 조나단을 자세히 살피었다. 조나단은 그 시선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이 격해지자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는 멍하고 무기력했다.

“*Komm hierher!*” 나이든 군인이 조나단을 향해 소리쳤다.

조나단은 울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다. 그들이 뭘 하라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그들이 시키는 걸 하고 싶었지만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Idiot!*” 나이든 군인이 소리쳤다. “*Die verstehen nie. Komm hierher, Junge.*”

조나단은 발을 움직여 머뭇머뭇 그에게 다가갔다.

“*Das ist besser.*”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나단은 그의 누그러진 모습에 안심하며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그 군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조나단은 그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놓여 계속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그 군인이 조나단을 향해 소리치며 총을 들어올렸다.

“*Halt!*”

조나단은 당장 멈춰 섰다. 양쪽에서 두 군인이 다가왔다. 키 큰 군인은 조나단이 내려놓았던 총을 밟았다. 그는 뭐라고 외치더니 총을 잡아 의기양양하게 높이 들어올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다.

조나단은 무서워 꿈쩍도 못했고 그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조나단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게 뭘 원하는지 알고 싶어요.”

가장 젊은 헤센이 신기한 듯 자신을 보며 말했다. “*Wir sprechen kein Englisch. Warum sprichst du kein Deutsch?*”

다른 군인들이 웃어댔다.

조나단은 너무 당황했고 그들을 쳐다보며 아는 말이라도 나올까 싶어 귀 기울였다. 키 큰 군인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다. 가장 젊은 군인은 불이 발그레했다. 나이 든 군인은 계속 자신의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은 대화를 이어나가며 한 번씩 조나단을 쳐다봤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둘이 따라 웃었다. 조나단은 수치심을 느꼈고 그들이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나단은 고개를 숙였다.

“*Dreb dich um!*” 나이든 군인이 소리쳤다.

조나단은 놀라서 그를 올려다봤다.

“*Dreb dich um!*” 그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그는 몹시 짜증이 난 듯 보였다. 그가 손을 뻗어 조나단을 밀자 조나단은 깜짝 놀란 발을 헛디뎠다. 그 순간 조나단은 부딪치지 않으려 양손으로 머릴 감싸며 그대로 넘어졌다.

“*Los,*” 나이든 군인이 말했다. “*er macht vor Angst in die Hosen.*”

젊은 군인이 그의 말에 대답했다.

조나단은 그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한다는 확신이 들어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다시 눈을 떴다. 그들은 그저 조나단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총구는 아래를 향해있었다.

“*Stech auf!*” 나이든 군인이 툭 내뱉었다. “*Es tut dir keiner was.*” 그는 몸을 숙여 조나단의 팔을 잡아 자신 쪽으로 끌어 당겼다. 그러고는 조나단을 툭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밀었다. 조나단은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세 명의 군인이 따라오고 있었다.

4:01

“*Warte!*” 나이든 군인이 한 손을 조나단의 어깨위에 올리며 말했다. 그들은 점점 숲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등에 매고 있던 배낭을 획 하고 바닥에 내려 놓더니 가방을 열어 밧줄을 꺼냈다. 그는 조나단의 팔을 획 잡아 올리더니 팔목에 밧줄을 묶어 젊은 헤센에게 줄을 넘겼다. 두 군인은 조나단을 젊은 군인에게 맡기고 앞으로 갔다.

조나단은 팔목에 묶인 줄을 내려다보고는 줄을 잡은 채 자신을 보고 있는 젊은 군인을 봤다. 젊은 군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주변을 둘러봤다.

“*Es ist ein shones Land.*” 잠시 후 젊은 군인이 말을 꺼냈다.

조나단은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나쁜 말 같지는 않았다.

조나단은 그를 좀 더 자세히 봤다. 그가 몇 살쯤 됐는지 궁금했다. 조나단은 그가 형 나이 정도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 조나단은 젊은 헤센의 집을 머릿속에 그려보려 했지만 자신의 집 말고는 생각나지 않았다.

조나단의 시선을 알아차린 그가 미소 지었다. 그러자 그의 볼이 더욱 빨그레해 보였다. “Soldat” 그가 자신과 조나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Soldat” 조나단은 알아들었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했다.

“군인” 조나단은 천천히 답했다. 갑자기 조나단이 그리도 되고 싶어 했던 ‘군인’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조나단은 “군인” 천천히 내뱉으며 지금 자신이 그리도 되고 싶어 하던 ‘군인’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 조나단은 “Soldat...” 이라고 말하자 수치심이 들었다.

젊은 헤센은 조나단이 계속 따라하자 빙긋 웃었다.

조나단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갑자기 그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앞서 가던 둘 중 한 명이 젊은 헤센을 부르자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Los, geh!” 젊은 군인이 차갑게 말하고는 줄을 흔들었다.

조나단은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4:10

얼마 후 그들은 다시 길가로 나왔다.

조나단은 그곳이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라는 걸 깨달았다.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황무지 같았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는 길가 끝 수풀 사이사이에 버려진 탄약 종이뿐이었다.

그때 조나단은 길 한가운데 있는 검은 얼룩을 발견했다. 그는 피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버지 친구가 흘린 걸까? 아니면 프랑스 아저씨? 헤센일까? 시체는 어디로 갔을까? 누가 치웠지? 조나단은 버려진 기분이 들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조나단은 다른 헤센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헤센을 볼 거라 생각했지만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어디로 간 걸까?

세 명의 군인은 모여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젊은 군인은 여전히 밧줄을 잡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려 했지만 그냥 그들 가까이 서있고 싶었고

보호 받고 싶었다. 그는 버려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조나단을 신경 쓰지 않았다. 조나단은 키 큰 군인이 길가를 향해 이리 저리 손으로 가리키자 그 손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우르르 쿵 소리가 나더니 조나단의 얼굴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이든 군인은 서둘러 줄을 낚아채며 조나단을 데리고 길을 따라갔다. 그들은 처음 헤센이 왔던 방향인 페닝턴 쪽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비를 피해 나뭇가지 사이사이로 움직였다.

번개가 번쩍하더니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그들은 나무 가까이에서 서지만 비를 피하진 못했다. 헤센은 천으로 자신들의 총을 덮으며 조나단의 총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때 젊은 군인이 큰 소나무를 발견했다. 4피트도 넘어 보였다. 나무 아래에는 갈색의 솔잎이 깔린 비를 피할만한 공간이 있었다. 젊은 군인은 모자를 벗어 총을 등 뒤로 돌려매고는 허리를 굽혀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두 군인은 조나단을 거칠게 안으로 밀고는 따라 들어왔다.

넋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렸다. 비가 썬 없이 쏟아졌고 이따금씩 천둥번개가 쳤다. 나이든 군인은 파이프 담배를 꺼내 그저 입에 물고만 있었다.

조나단은 빗소리 때문에 슬픔에 잠겼다. 조나단은 빗물에 자신이 씻겨 갈 것만 같았다. 그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이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조나단은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었다.

4:30

폭우처럼 쏟아지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다. 군인들은 이따금씩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 조나단은 혹시나 아는 말이 나올까 주의 깊게 들었지만 온통 이해할 수 없는 말뿐이었다.

조나단은 그들의 생각을 읽어보려고 조심히 그들의 얼굴을 살피었다. 조나단은 나이든 군인이 가장 걱정됐다. 그는 수염 때문인지 화나보였고 태도는 고압적이었다. 거대한 몸집과 상처 때문에 키 큰 군인 역시 위협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조나단은 젊은 군인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단지 조나단은 그를 얼마만큼 믿어도 될지 궁금했다.

조나단은 그들이 그를 해치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 할 수 있기를, 그가 뭔가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지금이야 그를 해치지 않을 것처럼 한다지만... 조나단은 전에 포로들에 대해 들었던 얘기를 떠올렸다. 헤센은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자들이었다. 이전에 그의 아버지도 반역죄로 교수형 당한 포로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또 몇몇 포로들은 투옥되기도 했고 끔찍한 감옥선에 갇히기도 했다. 조나단은 노예로 팔리거나 먼 곳으로 보내져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 얘기도 떠올렸다. 그는 그때 포로와 관련된 얘기를 잘 들어둘 걸 후회했다. 그는 너무도 아는 것이 없었다. 너무도!

조나단은 전투가 있었을 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다. 그가 아는 거라고는 자신들이 패배했다는 사실뿐이었다. 당시에는 혼란 그 자체였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조나단은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전투를 했는지도 의문이었다. 돌이켜보니 너무 어리석었다.

조나단은 헤센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들은 그에게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점점 잦아드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조나단은 그들의 굳은 얼굴을 보며 생각을 읽어보려 했지만 점점 잠에 빠져들었다.

5:00

“*Steh auf!*”

조나단은 누군가 자신을 흔들어대자 눈을 떴다. 키 큰 군인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조나단은 황급히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냈다.

다시 한 번 키 큰 군인이 그를 부르며 손짓했다.

그들은 한 명씩 고개를 숙이고 나무 밖으로 나갔다.

밭밀에 있는 풀도 나무에 달린 나뭇가지도 나뭇잎도 비에 젖어 물기를 머금고 있었다. 희뿌연 어스름 속에서 숲 주변 나무들이 아치모양으로 그림자를 이뤘다.

사물이 모두 흐릿하게 보여 가까이 있는 것만 겨우 보였다. 지금 그들은 숲 한가운데나 경계선 부근에 있는 거 같았다. 보이진 않았지만 그리 멀지않은 곳에서 딱따그르르 하는 딱따구리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숲을 벗어나 다시 진흙길을 걸었다. 조나단은 나이든 군인에게 여전히 밧줄을 잡힌 채로 걸어갔고 비에 젖은 발이 너무 차가웠다. 그는 이제 배도 고프다.

군인들은 길 위에서 잠시 주저했다. 그들은 안절부절못하며 서로 얘기를 나눴다. 키 큰 군인이 가장 말이 없었다.

그들은 조나단을 사이에 두고 길 한가운데로 걸어 내려갔다. 그들은 거의 대화가 없었다. 조나단은 조심히 주위를 둘러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매우 경계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따금씩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귀를 기울이곤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사방이 막힌 터널을 지나는 듯 했다.

조나단은 그들이 걸음을 멈추면 따라 멈췄다. 그들이 움직이면 그도 따라 움직였다. 어느 순간 젊은 군인이 걸음을 멈추고 길옆을 쳐다보자 조나단도 그를 따라 멈춰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나이든 군인이 멈추지 않고 계속 걸음을 옮기자 갑자기 줄이 헝 당겨졌고 조나단은 미끄러지며 진흙 위로 넘어졌다.

그들은 일어나 얼굴을 닦는 조나단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조나단도 그들을 보며 따라 웃다가 이내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뒤이어 꽤배감이 그를 덮쳤다. 그런 조나단을 알리가 없는 헤센은 계속 밧걸음을 옮겼다.

조나단은 자신이 알던 것과는 다른 세계로, 악몽과도 같은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조나단은 그 순간 충격에 휩싸여 자신이 왜 탈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조나단은 획 하고 위를 올려다봤다. 밧줄을 쥔 나이든 군인은 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달아날 수도 있었다. 그는 자신이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탈출... 진정한 군인이라면 생각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대체 왜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조나단은 자신을 다그쳤다.

하지만 조나단은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가 이해되기도 했다. 만약 그가 달아났

다 하더라도 대체 어디로 갔어야 했을까? 그가 전투에 가는 걸 반대했던 아버지에게로 갔어야 할까? 그가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어머니에게로 갔어야 할까? 그에게 돌아갈 기회를 줬던, 총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주막주인에게로 갔어야 할까? 그를 무시했던 미국인 아저씨들에게 갔어야 할까? 아니면 상사에게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겼다. 누구를 찾아갔어야 했는지 한명씩 얼굴을 떠올려 봤지만 마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나단은 옆에 있는 헤센을 보며 생각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건 이들 뿐인 걸까?

5:15

“*Wir haben uns verirrt.*” 젊은 군인이 말했다. 넷은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다.

조나단은 젊은 군인을 올려다봤다. 그는 당황스러워하며 걱정하는 듯 보였다. 나머지 둘 역시 당황한 듯 보였다.

“*Vielleicht sind wir geschlagen. Vielleicht sind wir die einzigen am Leben!*”

“*Gott helf uns!*”

조나단은 그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고 그들의 걱정스런 얼굴만 보였다. 젊은 군인은 자신의 열은 수염을 더듬었고 키 큰 군인은 자신의 상처를 문질렀다. 조나단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다. 습한 날씨 때문인 거 같았다. 흐린 날이면 아버지가 다리를 쓰다듬던 것처럼...

그들은 누가 엿듣기라도 할까 목소리를 낮춰 얘기했다. 조나단은 이쪽을 봤다가 다시 저쪽을 보는 그들을 유심히 살피었다. 그는 그들도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5:20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조나단은 축축함과 한기를 느꼈고 팔에 묶인 밧줄이 쓸리고 아팠지만 그대로 따라갔다. 안개는 눈앞에서 열어지다가 다시 짙어지기도 하고 그들을 둘러싸기도 하다가 머리위에 깔리기도 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다.

“O Gott!” 키 큰 군인이 팔을 뻗어 그들을 저지하며 외쳤다.

즉각 나머지 두 군인은 자신들의 총을 잡아당겨 키 큰 군인이 가리킨 방향을 주시했다. 조나단은 그들만큼이나 긴장한 채 가리킨 곳을 쳐다봤다. 뭔가 나타난 듯하더니 이내 사라졌다. 너무 빨리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조나단은 자신이 본 게 맞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사람 같았다. 조나단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자신이 본 것이 상사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 형체는 순식간에 안개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었다.

“Es ist nichts.” 젊은 군인은 잠시 긴장했지만 안심이 된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Doch, da war was!” 키 큰 군인이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다.

조나단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혹시 주변에 다른 미국인 아저씨들이 있는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조금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지금 기쁜 건지 실망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조나단이 어떤 방안을 생각하기도 전에 나이든 군인이 줄을 확 잡아당겨 조나단을 그의 가까이로 끌어당겼다.

그들은 가만히 서있었고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는 듯 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눴다.

조나단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가 아팠고 그제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뜨자 경직된 채로 서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군인들이 보였다.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안개가 더 짙어졌다.

마침내 나이든 군인이 말을 꺼냈다. 조나단에게는 저주처럼 들렸다. 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머지 두 군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다시

이동하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봤다. 기쁜 걸까? 아니면 실망한 걸까? 그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기쁨? 실망? 알 수 없었다.

5:30

그들은 어딘가에서 ‘음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즉시 발길을 멈췄다. 고통스러운 듯 구슬픈 소리였다.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봤다.

낮고 애절한 소리는 계속됐다. 군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걸어갔다. 길을 가로질러 어둡고 축축한 숲을 향해서...

그들은 조나단을 가까이 둔 채 조심조심 움직였다. 그들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자 멈춰 섰다. 조나단은 그 소리에 놀랐다. 구슬퍼 우는 소리가 분명했다. 그는 저들이 그 의미를 알 수나 있을지 궁금했다. 저들의 고향에도 소가 있을까?

키 큰 군인이 총을 덮고 있던 천을 벗기더니 발사할 준비를 했다. 이내 재빨리 천으로 다시 총을 덮었다. 그러더니 자신의 가방에 조나단의 총을 안전하게 끼워 넣고 손이 닿지 않게 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소 울음소리를 기다렸다. 조나단은 물 떨어지는 소리 때문에 더욱 긴장됐다.

소가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가깝게 들렸다. 조나단은 안도했다.

헤센은 몸을 돌려 서둘러 이동했다. 얼마 후 그들의 눈앞에 가로장 울타리가 나타났고 안개 사이로 보이는 그 너머에는 탁 트인 공간이 있었다.

또다시 소가 다시 울었지만 들판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두 군인 역시 자신들의 총을 가져와 상태를 확인했다. 조나단은 다시 한번 상사와 다른 아저씨들을 떠올렸다. 아마 그들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 들판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는 경고하는 신호를 보내야 할까? 그는 지금 누굴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 헤센일까? 아니면 미국인 아저씨들일까?

헤센은 울타리를 넘어갔다. 조나단도 따라가려 했지만 줄이 꼬여버렸다. 젊은

군인이 울타리 너머로 몸을 숙여 풀어주었다. 지켜보고 있던 나이든 군인은 젊은 군인을 쳐다보다가 소 울음소리에 뒤를 돌아 들판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조나단은 차근차근 울타리를 넘어 그들을 따라갔다.

발이 움푹 움푹 빠지는 목초지를 지나갈 때 썸 나이든 군인이 조나단에게 앞서 가라고 했다.

탁 트인 곳으로 가자 안개가 점점 걷혔다. 헤센군은 몇 발자국 떨어져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그들은 총을 겨누며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조나단은 자신들이 이동하던 방향을 응시했다. 그는 뭘 찾던 그가 제일 먼저 알아보길 원했다.

안개가 좀 전보다 더 걷히자 소가 나타났다. 줄이 풀린 상태로 목에 달려 있었다. 소 뒤로는 캄캄한 집이 보였다.

5:40

그 집은 조나단의 집보다 작았다. 통나무 사이사이를 진흙으로 채운 스웨덴풍으로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다. 현관문 앞에는 넓은 테라스가 있었다. 버려진 듯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문 앞에 있던 소는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헛간이 있었고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조심조심 젖은 땅을 디디며 발걸음을 옮겼다. 조나단은 여전히 맨 앞에 있었다. 그들은 집 가까이 다가가자 발걸음을 멈췄다.

소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혀를 날름거리며 그들을 쳐다봤다. 소는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더 길고 구슬프게 울었다. 소는 누군가 자기 젖을 짜주기를 집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군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불안한 시선만 주고받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젊은 군인과 키 큰 군인은 결정을 기다리는 듯 나이든 군인을 바라봤다. 마침내 나이든 군인이 조나단의 팔을 잡고 밀며 말했다. *“Los! Mach die Tür auf.”*

조나단은 주춤주춤 앞으로 몇 발자국 옮기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다. 젊은 군인을 쳐다봤지만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있었다. 나이든 군인이 팔을 흔들었다. 계속 가라는 얘기 같았다. 조나단은 자신이 잘 가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세 발자국 쯤 더 가서 다시 뒤를 돌아봤고 나이든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나단은 현관에 발을 올려놓았다. 바닥이 살짝 들어갔다. 그는 기둥을 잡고 현관에 올라서서 잠시 귀를 기울였다.

아무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뒤를 돌아 군인들을 봤다.

“Los!”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명령했다. 나이든 군인이 자신의 총을 들어올렸다. 그가 총을 장전하자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나단은 조심히 문을 두드렸다.

“Noch einmal!” 나이든 군인이 허스키한 목소리로 소곤거렸다.

다시 한 번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침내 조나단은 자물쇠를 잡아 당겨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에 달린 문이 반쯤 열렸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봤다. 몇 발자국 앞으로 나와 있던 군인들은 조나단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했다.

조나단은 조심히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이 하나로 된 집이었다.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고 유리로 만든 창문 하나가 있었다. 한쪽 끝에는 벽난로가 있었다. 집 한가운데에 식탁이 있었다. 벽 옆에는 낮은 카운터가 있었는데 아마 침대가 아닐까 생각했다. 낡은 의자 두 개도 있었고, 벽면마다 많은 박스들이 놓여있었다. 식탁위에는 컵, 양철접시, 초가 꽂혀있는 촛대가 있었다. 문 옆에는 나무 사이 세워져 있었다. 가난한 집 같았다. 사람들이 갑자기 버리고 떠난 듯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나단이 문으로 고개를 돌리자 키 큰 군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큰 키 때문에 머리가 문에 닿을 거 같았다. 뒤이어 다른 군인도 들어왔다.

젊은 군인이 집안 여기저기를 뒤졌다. 그는 반 정도 남은 빵을 찾아내고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쿵하며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밖에서는 소가 음메하고 울었다.

“우유를 짜줘야 해요.” 조나단이 말했다.

“Was war das?” 젊은 군인이 대꾸했다.

키 큰 군인이 통명스럽게 뭐라고 말했다. 그들은 모두 화가 나고 불만스러워 보였다.

소가 다시 울었다.

“우유” 조나단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밖을 가리키고는 양손으로 우유를 짜는 모습을 보여줬다. “마셔도 되요”라고 말하며 마시는 동작을 취했다.

젊은 군인은 그런 조나단이 재미있다는 듯 바라보다가 갑자기 알아들었는지 웃으며 외쳤다. “Melken! Wir können dann die Milch trinken.”

조나단은 그가 알아들었구나 생각하며 양동이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마땅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젊은 군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조나단을 문가로 밀었다.

조나단은 그가 하는 대로 문으로 갔다. 젊은 군인은 문가에 서서 조나단을 보고 있었다.

밖으로 나온 조나단은 소에게 다가가 귀 언저리를 쓰다듬어 주며 양동이를 찾았다. 그는 집 한쪽에 있던 헛간을 기억해 내고는 군인을 보며 헛간을 가리켰다.

군인은 현관에 서서 그에게 눈을 찡긐했다.

조나단은 그 모습에 웃음이 났다. 동지애가 느껴졌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행복하기까지 했다. 그는 헛간으로 가서는 문을 열었다. 그는 안을 살펴봤다.

한 아이가 바닥에 앉아있었다.

6:00

그 아이가 아주 어리다는 걸 조나단은 알 수 있었다. 조나단의 여동생은 7살이었는데 이 아이는 여동생보다 체구가 훨씬 작았다. 아이는 바닥에 앉아있었는데, 맨발인데다가 지저분한 모직 셔츠를 입었으며 까만 얼굴 여기저기에는 흙이 묻어있었다. 그의 팔다리 역시 너무 더러웠다.

조나단이 그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이는 잠에서 막 깬 듯한 모습으로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입을 열어 무슨 말인가 할 듯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재빨리 뒤를 돌아 집 쪽을 봤다. 젊은 군인은 문가에 서서 헛간 너머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조나단을 보지 못했다.

조나단은 다시 아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조용히 해!” 그는 아이의 입을 막고 속삭였다.

아이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멍하니 조나단을 바라봤다.

조나단도 아이를 바라봤다. 그는 지금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보려 했다. 다시 바보가 된 것만 같았다. 지금 이 상황을 저 군인들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닐까?

조나단은 헛간을 둘러봤다. 처마 밑 조그마한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 안을 볼 수 있었다. 헛간 안에는 농기구 몇 개와 지푸라기 더미가 있었고 구석에는 나무로 된 양동이 있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조나단이 양동이를 잡으려고 손을 뻗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아이는 놀란 듯 움찔하며 몸을 피했다.

“부모님은 어디계시니?” 조나단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가 조나단을 쳐다봤다. 조나단은 아이가 가만히 있자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그 자신도 포로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 집을 봤다. 군인은 여전히 이쪽으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숨어 계시는 거니? 근처에 계셔?” 조나단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아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이는 겁먹은 채 몸을 피했다.

“가까이 계시니?” 조나단은 좀 더 부드럽게 물었다. 조나단은 아이가 대답이 없자 일어서서 헛간 밖을 살피었다. 군인이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다.

“*Los, geh!*” 군인이 소리쳤다.

“우유를 짜야 해!” 조나단이 아이에게 말했다. “여기 있어. 움직이지 말고. 최대한 빨리 올게.”

조나단은 양동이를 집어 올려 밖으로 나가며 헛간 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조나단은 문득 젊은 군인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가 뭔가를 미심쩍어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은 채 소를 향해 갔다. 그는 군인 쪽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소의 몸통 밑에 양동이를 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소 옆구리에 얼굴을 가져다 댔다. 소가 발을 굴렀고 조나단은 젖을 짜기 시작했다.

하얀 거품을 내며 우유가 뿜어져 나왔다. 조나단은 부드럽게 우유를 짜며 눈을 감고 얼굴에 닿는 거칠고 따스한 촉감을 느꼈다. 집에 있을 때도 소젖을 짜는 일은 조나단이 맡은 일 중 하나였다. 젖을 짜내는 귀에 익은 소리가 그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조나단은 아이에 대해 생각했다. 누굴까? 대체 그곳에서 뭘 하는 걸까?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걸까? 헤센에게 말해야 하는 걸까? 만약 애길 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다정하게 대해 주는 거 같은데 진심일까?

조나단은 양동이를 채운 후 소의 다리에 걸리지 않도록 양동이를 한쪽에 옮겨 놓았다.

젊은 군인은 이쪽을 보고 있다가 그만하면 됐다고 중얼거렸다. 조나단은 죄책감이 들어 그의 시선을 피했다.

조나단은 양동이를 집안으로 가져갔다.

초가 켜져 있었다. 키 큰 군인은 팔다리를 바닥에 늘어뜨린 채 침대 위에 대자로 누워있었다. 나이든 군인은 어깨띠를 벗어놓고 상의는 풀어헤친 채 식탁에 앉아 컵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조나단은 다시 한 번 그들이 얼마나 체구가 큰 사람들인지 느낄 수 있었다.

아까 봤던 빵은 큰 세 조각과 작은 한 조각으로 나뉘져 있었다.

조나단은 식탁위에 우유 통을 놓고 나자 허기가 졌다. 빵을 쳐다보자 나이든 군인이 이를 알아차리고는 가장 작은 빵을 조나단을 향해 밀어주고는 컵으로 손을 뻗었다.

조나단은 그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군인은 조나단이 했던 것처럼 마시는 시늉을 하고 있었다. 조나단은 감사하게 생각하며 컵을 양동이에 넣어 우유를 채우고는 단 두 모금 만에 다 마셨다. 나이든 군인은 잘했다는 듯 끄덕였다. 조나단이 두 번째 잔을 마시려는데 나이 든 군인이 손을 뻗었다. 조나단은 컵을 건네주었다. 나이든 군인은 우유를 단번에 들이켰다. 젊은 군인도 가까이 다가와

우유를 마셨고 컵을 나이든 군인에게 건네주었다. 나이든 군인은 계속 우유를 마셨다.

키 큰 군인이 빵을 먹으려 자리에서 일어섰고 젊은 군인은 벽난로로 가서 불을 키려했다.

조나단은 허기를 채우려 허겁지겁 빵을 먹고 나자 빨리 집밖으로 나가 아이에게 가고 싶었다. 그는 밖으로 나갈 핑계를 찾으면서도 그들에게 말해야할지 고민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소가 다시 울었다. 군인들은 잠시 무시하는 듯하더니 소가 계속 울어대자 젊은 군인이 일어서서 조나단을 향해 손짓하며 양동이와 문을 가리켰다.

조나단은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양동이를 집어 올려 문으로 걸어갔다. 잠시 서서 따라오는 이가 있는지 살펴봤다. 젊은 군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느릿느릿 뒤를 따라왔다.

조나단은 다시 우유를 짰다. 이번에는 전보다 우유 양이 많지 않았다. 조나단은 젖을 짜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다. 조나단은 몇 번이고 군인을 올려다봤지만 그는 이쪽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말할까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들이 내 편인지 아니면 적인지 혼란스러웠다.

조나단은 젖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자 일어섰다.

“Fertig?” 젊은 군인이 물었다.

“소를 보살펴줘야 해요.” 조나단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말하며 양동이를 건네주었다. 조나단은 소를 가리키고 다시 헛간을 가리켰다. 군인은 이해했다는 듯 으쓱하고는 조나단을 혼자 둔 채 양동이를 들고 뒤를 돌아 가버렸다.

조나단은 잠시 그 자리에 서있었다. 순간 젊은 군인이 자신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나단은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소의 목에 걸려있던 줄을 잡아 소를 헛간으로 데리고 갔다.

6:30

소는 고분고분 따라왔다. 조나단은 헛간 문에 이르자 줄을 기둥에 매고 어깨너머로 힐끗 보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조나단을 올려다봤다.

조나단은 옆걸음질로 들어오면서, 문을 비스듬히 열어 놓아 누군가 집에서 나온다 해도 헛간 안을 볼 수 없게 하고, 그 틈으로는 빛이 들어오게 하였다. 그는 아이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부모님은 어디계시니? 알려주렴.” 조나단은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아이는 희미하게 들어오는 빛을 통해 그저 조나단을 보고만 있었다.

조나단은 아이의 얼굴에 해답이 있는 듯 뚫어지게 봤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살짝 다문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조나단은 쓸쓸하고 슬퍼 보이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

“부모님 말이야. 너희 어머니. 돌아오시니? 마마?” 조나단의 되묻는 목소리에 는 다급함이 담겨있었다.

조나단은 순간 알아들은 것 같은 아이의 눈빛을 읽었다. 아이의 입이 약간 실룩거렸고 표정이 풀어졌다. 잠시 그는 아이가 울먹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이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손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조나단은 아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눈을 돌렸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조나단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겠어. 도움이 필요해. 저들을 믿어보자.’라는 결론에 이르자 손을 꺼내며 아이에게 말했다. “함께 가자.”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나단은 일어서서 다시 손을 내밀며 말했다. “함께 가자.” 이번에 그는 좀 더 부드러운 어투로 말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손을 꺼냈다. 조나단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를 헛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조나단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걸어가며 현관을 지나 문 앞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그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망설였다.

6:35

제일 먼저 그들을 알아본 사람은 나이든 군인이었다. “*Mein Gott!*” 그가 소리쳤다.

그 소리에 다른 군인들이 각각 침대와 벽난로에서 달려왔다. 모두들 아이를 내려다봤다. 조나단은 지금까지 그들이 이렇게 거대해 보인 적이 없었다.

“*Woher kommt denn der?*” 젊은 군인이 물었다.

“헛간에 있었어요.” 조나단은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 대답했다. “그냥 거기 앉아있었어요.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군인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다. 그러더니 젊은 군인이 으쓱하고 웃으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키 큰 군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벽난로로 갔다. 나이든 군인은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수염을 만지작거렸다.

아이의 조나단의 곁을 떠나기 싫다는 듯 옆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엄마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조나단이 아이에게 물었다. 그때, 아이가 ‘마마’라는 말에 반응하던 걸 기억해내고는 “마마”라고 말했다.

아이가 다시 반응을 보였다. 아이는 방향을 찾으려는 듯 이리저리 둘러보고는 어딘가를 가리켰다.

젊은 군인은 한쪽 팔꿈치로 기대 누운 채 물었다. “*Was saft er?*”

“너희 엄마, 어디 있어? 마마?” 조나단은 아이 얼굴을 보며 천천히 하나씩 말했다.

아이는 잠시 조나단을 쳐다보더니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조나단은 순순히 문까지 아이를 따라갔다. 조나단은 문 앞에 서서 동의를 구하기 위해 군인들을 쳐다봤다. 두 군인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나이든 군인을 향해 몸을 돌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나단이 아이를 따라 밖으로 나가자 두 군인이 뒤따라 나왔다.

6:45

조나단은 울타리 너머에 있는 작은 들판 한편에서 아이의 부모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은 나무를 베어 개간한 곳이었다.

아이의 아빠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누워있었다. 그는 팔을 대자로 뻗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아이의 엄마 역시 죽은 상태였다. 그녀는 엎드려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젖은 채 여기저기 찢긴 채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의 긴 회색빛 머리카락은 술을 두른 것처럼 목 부근에 넓게 펼쳐져 있었다.

아이는 잠시 시체 옆에 가만히 서있었다. 그러더니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 앉아서 엄마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는 작은 손으로 서툴게 머리를 땅으려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조나단은 큰 충격을 받아 눈앞에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대체 무슨 일이지?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세 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는 가까이 다가왔다. 그들의 군복은 헝클어져 있었다.

그들은 시체를 보고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다. 조나단은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다. 골치 아픈 표정이었다. 순간 화가 치밀었다. 반응이 저게 다인거야?

“이분들이 부모님이시니?” 조나단이 아이에게 물었다. 조나단의 목소리가 너무 낮았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조나단이 물었다.

아이의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는지 말을 못하는 건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못하는 거야?” 조나단이 애원조로 물었다.

아이의 대답이 없었다.

조나단은 뒤에 있던 군인들을 봤다. 그들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들이 서있던 곳에서 들판 너머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둠이 짙어졌다. 하늘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거라고는 서있는 그 부근이 다였기에 조나단은 마치 섬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의 뒤에서는 세 군인이 인내심이 바닥난 듯 조나단을 향해 빠르게 걸어왔다. 잔잔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렸다.

조나단은 젊은 군인을 애원하듯 쳐다봤다. 하지는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낮게 뭐라고 투덜거렸다. 그러더니 그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키 큰

군인 역시 뒤이어 집안으로 들어갔다.

조나단은 실망감이 들었고 시체와 아이, 남아있던 나이든 군인을 차례로 응시했다.

군인은 손을 뻗어 조나단의 어깨를 툭 치며 집을 향해 고개를 까딱하고는 몇 걸음 걸어갔다.

아이는 아직도 엄마의 머리를 땅고 있었다.

조나단은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군인을 쳐다봤다. “*Nun komm!*” 그가 재촉하듯 말했다. 조나단은 발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조나단은 아이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숨죽여 속삭였다. “저자들이 죽인거니?”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알아야해! 저자들을 알아보겠니?” 조나단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눈앞에 닥친 끔찍한 사실이 무서웠다.

조나단은 다시 뒤를 돌아 나이든 군인을 보며 자신이 그동안 들었던 헤센의 잔인함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생각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는 길 위에서 헤센과 다시 마주 했었다. 전투가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또 죽은 아버지 친구분도 봤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떨고 있던 프랑스 아저씨도 봤다. 조나단은 아이에게 물었다. “저자들이야. 맞는 거지?”

“*Komm!*” 군인이 화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 날카로운 소리가 비수처럼 조나단의 귀에 꽂혔다.

“같이 가자.” 조나단이 아이에게 말했다.

조나단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이든 군인을 따라 집으로 갔다.

7:00

젊은 군인은 팔로 눈을 가리고 군화를 벗은 발을 침대 한쪽 끝에 걸쳐 놓은 채 누워있었다. 키 큰 군인은 자신이 켜놓은 벽난로 근처에 앉아 잠을 쫓으려 하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조나단보다 먼저 집안으로 들어온 나이든 군인은 식탁

한편에 자리를 잡고는 파이프의 불을 켜고 있었다. 그의 큰 손에 비해 파이프가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다.

조나단은 아이와 나란히 문가에 서서 안을 살펴봤다. 그는 점점 화가 났다. 조나단은 그들의 냉담한 모습을 보자 그들이 살인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자신의 확신이 잘못됐음을, 오해를 풀 기회를 주고 싶었다.

“저들을 물어줘야 해요.” 조나단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나이든 군인은 그저 담배연기만 내뿜었다.

조나단은 젊은 군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갔다.

“저들을 물어줘야 해요. 혼자서는 못해요.” 조나단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조나단은 젊은 군인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을 내밀어 머뭇머뭇 그의 팔을 흔들었다. 젊은 군인이 탁하고 조나단의 손을 뿌리치더니 등을 돌려 누웠다.

거절당해 상처받은 조나단은 뒤를 돌았다. 키 큰 군인이 이제 대자로 뺨은 채 잠이 들었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는 나이든 군인밖에 없었다.

조나단은 얼마간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가 그런 거죠?” 조나단이 불쑥 내뿜었다.

나이든 군인은 담배 연기만 뿜었다. 담배 연기 뒤로 보이는 그의 표정은 상실감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듯 보였다.

조나단은 화가 치밀어 올라 획 몸을 돌려 문 옆에 있던 샵을 집어 올렸다. 그는 보란 듯이 샵을 들어 올려 나이든 군인에게 보여줬다.

“저들을 물어줄 거예요.” 조나단이 말했다.

나이든 군인은 잠시 올려다보는 듯 했지만 이내 관심 없는 듯 고개를 돌렸다. 조나단은 아이의 손을 잡고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아이는 그 광경을 유심히 쳐다봤다. 앞으로 닥칠 일을 아는지 마는지... 하지만 조나단은 아이에게 말해줄 수 없었다.

조나단은 땅속을 열어 보이려는 듯이 시체 옆을 파기 시작했다. 얽히고설킨 뿌리와 둔탁한 샵 때문에 땅파기가 힘들었다. 화가 난 조나단은 샵으로 땅을 이리

저리 찍어댔다. 그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켜 아버지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을 더듬었다. 그는 삽 윗부분에 발을 올려 땅속으로 삽을 찍어 눌렀다. 점점 더 힘차게 흙을 파냈다.

그 모습을 아이가 지켜봤다.

7:35

그는 한참 땅을 파고 나자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무덤을 만들 기에는 구멍이 너무 얕았다. 아이는 자신의 엄마 곁에 머리를 뉘어 잠이 들었다.

조나단은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너무 지쳤고 온몸이 땀범벅이었다. 더 이상 혼자 할 수는 없었다. 조나단은 분을 삭이지 않은 채 한 손에 삽을 들고 집으로 갔다.

집안은 달라진 게 없었다. 나이든 군인만 깨어있었다. 그는 그의 큰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앉아있었다. 그 앞에는 빵부스러기가 여기저기 있었다. 우유가 얼마 남지 않은 양동이에는 컵이 떠있었다.

“도와주세요.” 조나단이 투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아직 손에 삽을 들고 있었다.

나이든 군인은 서서히 몸을 일으켜 조나단을 쳐다봤다. 조나단은 그의 얼굴을 보고 흠칫 놀랐다. 조나단은 지금까지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잘 다듬어진 콧수염이 나이를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다시 보니 그의 머리칼은 희끗했고 며칠 깎지 않아 까칠하게 자란 희끄무레한 턱수염 때문에 그는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눈에는 피곤이 가득했다.

“혼자서는 못하겠어요.” 말을 하던 조나단은 순간 패배감이 들었다. “도와주세요.” 그는 애원하듯 다시 말했다.

나이든 군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자고 있던 젊은 군인에게로 갔다. 그는 젊은 군인을 흔들며 깨우더니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다.

젊은 군인은 일어나 앉아 나이든 군인과 조나단을 차례로 봤다. 나이든 군인이 다시 뭐라고 말했다. 마치 명령하는 것 같았다.

젊은 군인이 똥한 표정으로 자신의 군화를 찾아 신었다.

조나단은 손에 삽을 든 채 문가에 서서 기다렸다.

젊은 군인이 잠이 덜 깬 듯 약간 휘청거리더니 문 옆으로 와서 어둑해진 밖을 내다봤다. 그는 집안으로 들어가 벽난로에서 불붙은 나뭇가지를 가져왔다.

젊은 군인이 횃불을 높이 들고 조나단의 뒤를 따랐다. 횃불은 밝지 않았고 희미한 주황불빛만이 깜빡깜빡했다. 그 때문에 밖은 더욱 더 어둡게 느껴졌다.

7:40

조나단이 앞장섰다. 그는 두고 온 아이를 찾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부모님 옆에서 자고 있었다.

젊은 군인은 멈춰 서서 조나단이 해놓은 것을 살펴봤다. 그는 경멸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내지르더니 횃불을 조나단에게 던지듯 주고는 삽을 잡아채갔다. 조나단은 그가 자신을 때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순간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젊은 군인은 얇은 땅속에 들어가 서둘러 땅을 파기 시작할 뿐이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땅을 파내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는 화난 모습으로 조나단을 노려봤다. 조나단 역시 다시금 화가 나 냉담하게 서있었다. 젊은 군인은 얼마 안 있어 지친 듯 삽을 조나단에게 던지고 기어 올라왔다.

조나단은 땅속으로 내려가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다. 곧 젊은 군인이 답답한 듯 내려와서는 삽을 가져가더니 조나단을 밖으로 밀어냈다.

“*Das genügt.*” 마침내 젊은 군인이 손에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다. 그가 삽을 던져 올리고는 기어 올라왔다.

조나단은 아이에게로 다가가 그를 살짝 깨웠다. 아이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이내 화들짝 일어나 않더니 수줍어했다. 아이는 조나단에게서 젊은 군인에게로 시선을 옮기더니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나단은 주변을 둘러봤다. 젊은 군인은 횃불을 높이 들고 있었고 그 때문에 얼굴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길고 무섭게 보였다. 마치 그의 머리가 늘어난 것 같았다. 조나단은 그가 다르게 보였다. 그는 힘이 센 악마처럼 보였다.

젊은 군인이 횃불을 땅에 양초처럼 꽂았다. 그러더니 그는 누워있는 남자 쪽으

로 갔다. “*Halt ihn fest.*” 그가 조나단에게 통명스럽게 말했다.

조나단은 남자의 팔 쪽으로 가서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남자의 팔목을 잡았다. 차갑게 굳어 있었다. 땅바닥에 앉아있던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먼저 남자를 굴러 파놓은 무덤 쪽으로 옮겼다. 그리고는 여자를 옮겼다. 여자의 시체가 굴러가더니 남자 시체위에 얼굴이 위로 향한 채로 멈췄다. 조나단은 처음으로 여자의 얼굴을 봤다. 입을 벌린 채 눈은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있었다. 커다란 이가 들쭉날쭉 나있었고 윗송곳니는 빠져있었다. 그녀의 핏기 없는 입술이 벌어져있어 혀가 보였다. 혀는 검게 변해있었다.

“*Los, beeil dich!*” 젊은 군인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손을 내려 흙을 한 움큼 쥐더니 시체 위로 뿌렸다. 그러더니 조나단을 향해 손을 뻗으며 재촉하는 듯 손을 흔들었다.

조나단은 쭈뼛쭈뼛 삼을 집어 올렸다. 그는 쌓아놓은 흙더미에서 흙을 퍼내 시체 위를 덮었다. 여자의 얼굴 위로 흙이 떨어져 그녀의 입안으로 들어갔다. 조나단은 그 모습을 보자 숨이 턱하고 막혔다. 그는 뒤를 돌아 헛구역질했다.

조나단은 바들바들 온몸을 떨며 무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갑자기 젊은 군인이 삼을 낚아채가더니 나머지 흙을 덮었다. 옆에 가만히 서있던 조나단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젊은 군인은 흙을 다 덮고 나자 삼을 내던지고는 아이를 향해 손을 뻗어 일어 서라는 듯 손을 까딱했다.

조나단은 아이에게 다가가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이는 이번에는 순순히 조나단 옆으로 와서 섰다. 하지만 조나단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하자 아이는 손을 뿌리치며 주먹을 쥐었다. 조나단은 눈물이 나오려는걸 애써 참았다. 조나단은 위안이 될까 싶어 아이의 손을 잡고 싶었다.

젊은 군인은 군복 상의를 여미며 단추를 잠그더니 수염을 정리하듯 쓰다듬었다. 나이든 군인이 많이 하던 행동이었다. 그러더니 그는 똑바로 서서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단조로운 억양 때문인지 기도문처럼 들렸다. 조나단은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젊은 군인은 서둘러 기도를 끝내고는 -조나단은 너무 금방 끝 난건 아닌가 생

각했지만- 군복에 손을 닦고는 햇불을 들고 조나단을 보며 돌아갈 거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조나단은 그의 어깨너머를 봤다. 불빛이 비치는 창문을 보았다.

조나단이 몸을 숙여 아이를 일으키려 했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를 데려가야 했기에 조나단은 그를 안아 올렸다. 젊은 군인이 먼저 집을 향해 갔고 조나단은 그 뒤를 따랐다. 조나단은 자신의 목 뒤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숨결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8:15

조나단은 집에 들어서자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젊은 군인은 곧장 침대로 가서 군화를 벗고 다시 눕더니 곧 잠이 들었다.

키 큰 군인은 벽난로 앞에 한 팔에 머리를 누이고 있었다. 그는 다른 팔은 주먹을 쥐 채 마치 아기처럼 입가에 놓고 있었다. 그는 간간이 코를 골았다.

나이든 군인은 깨어있었다. 그는 구석에 앉은 채 담배를 손에 쥐고 있었다. 담배에서 작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일부러 조나단과 아이 쪽은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군인들을 보며 비참하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다. 조나단은 남은 우유를 떠서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잡고 조금씩 마셨다. 그는 다 마시고나자 조나단에게 컵을 주며 뭔가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러더니 그는 방 저편을 가리키며 조나단의 다리를 잡아당겼다. 처음에는 그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내 조나단은 젊은 군인이 누워 있는 침대 밑에서 긴 상자 같은 물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나단은 물건을 꺼내보았다. 상자 안에는 짙은 마대자루가 있었다. 담요도 있었다. 아이의 침대였다.

아이의 조나단을 도와 자신의 침대를 식탁 바로 아래까지 끌어당겨 갔다. 아이는 침대 안으로 들어가 한쪽으로 돌아누웠다. 그는 담요를 끌어당기고는 그 자세로 침대 옆면만 가만히 응시했다.

조나단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아이에게 손을 뻗어 목덜미 부근을 쓰다듬어

주었다. 부드러운 머리칼이 느껴졌다. 아이는 약간 움찔하는듯 하더니 이내 잠이 들었다.

조나단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조나단은 다시 방안을 둘러보다 나이든 군인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나단에게 손짓했다. 조나단은 주춤주춤 다가가며 그의 손에 들린 밧줄을 발견했다. 나이든 군인은 조나단이 가까이 오자 몸을 앞으로 구부려 재빨리 조나단의 발목에 밧줄을 묶고는 단단히 매듭을 지었다. 밧줄의 반대쪽 끝은 군인의 발목에 묶여있었다.

나이든 군인은 몸을 돌려 무심하게 담배를 피웠다.

조나단은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다. 조나단은 가능한 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서는 등을 돌려 앉았다.

조나단은 발목에 단단히 묶여 있는 밧줄을 내려다 봤다. 딱 봐도 풀 수 없었다.

순간 조나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방안을 둘러봤다. 나이든 군인은 머리를 뒤로 한 채 벽에 기대고 있었다. 잠이 든 듯 그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는 입을 약간 벌린 상태였다. 손에 쥔 담배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고 빨간 불꽃이 튀며 재가 됐다. 순간 바닥이 수많은 별이 뜬 밤하늘처럼 빛났다.

조나단은 잠이 든 다른 군인들도 살펴봤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방향을 틀다 잠이 든 아이를 봤다.

조나단은 나이든 군인을 주시하며 머뭇머뭇 밧줄을 잡아당겼다. 조나단은 점차 확신이 들어 양손으로 줄을 풀었다. 마침내 매듭이 풀렸다.

조나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밤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올빼미 소리가 들렸다. 지붕 위로 뭉가가 종종 걸음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뭉가를 기다리는 듯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있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다. 잠이 든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달아날 수도 있었다. 아니면 여기서 이들의 포로로 남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 자신은 진정한 군인이 되어 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

8:45

“해보는 거야.” 조나단은 다짐하듯 말했다. “해보자...”

조나단은 방안을 둘러보며 머스킷 총을 찾았다. 그는 방 한쪽에서 가지런히 놓여있는 총을 발견했다. 근처에는 헤센의 모자도 있었다.

조나단은 헤센을 향한 증오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며 가만히 서있었다. “해봐.”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말했다. “저자들처럼 하는 거야... 총을 들어... 저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루는 거야...”

조나단은 일부러 나이든 군인을 쳐다보며 혼잣말했다. “그는 잔인해. 살인자야. 적군이라고.”

조나단은 조용히 방안을 가로질러 자신의 총을 들어올렸다. 그는 자신의 총이 젖었다는 걸 기억해내고는 총을 다시 내려놓고 헤센의 총 하나를 집어 올렸다. 그는 총을 양손으로 잡았다. “어서.” 다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총 옆에는 탄약가방이 있었다. 조나단은 탄약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렸다. 조나단은 조심조심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이번에는 잘 해냈다. 종이를 찢어 탄약가루를 집어넣고 납공과 종이를 동그랗게 뭉쳐 총열 안에 넣었다. 화약접시에 화약가루를 넣었다.

조나단은 최대한 조용조용 움직여 문을 열었다. 손에 총을 들고 현관으로 가서는 뒤를 돌아봤다. 단 한발이다. 한발만 쏘고 뒤돌아 달리는 거다.

단 한 발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는 잠금장치를 뒤로 당겼다. 그리고 총을 들어올렸다. 그는 발을 문 안과 밖에 발을 하나씩 놓고는 문 앞에 자리를 잡았다. 나이든 군인을 향해 총구를 겨누자 그의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침을 삼키고 눈을 꼭 감았다.

순간 조나단은 길 위에서 있었던 전투를 생각했다. 그는 다시 눈을 뜨고 나이든 군인을 쳐다봤다. 조나단은 입을 짹 다물었다. 그의 불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보는 거야!”

조나단은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저히 쏠 수 없었다.

조나단은 천천히 총을 내려 총구를 아래로 향하게 했다.

조나단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들킬까 무서워 조용히 탄약을 빼고는 총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았다. 조나단은 내내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았다. 그리고는 그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땅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봤다.

9:00

열은 안개 사이사이로 서늘한 밤바람이 불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빼곡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나단은 숨을 깊이 들이켰다. 가슴 가득 맑은 공기가 들어왔다.

조나단은 가만히 누워 그날 아침 주막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다. 그 종소리! 그는 너무나 전투에 가고 싶어 했던,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적을 물리치고 싶어 했던 자신을 돌아봤다. 그 일들이 너무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조나단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조나단은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대체 왜 자신은 그렇게밖에 못했던 걸까?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걸까?

그는 더듬더듬 출구를 찾아보려했다. 자신의 실수를 만회할 뭔가를 찾아보려했다.

바로 그때 조나단은 상사가 생각났다. 조나단은 길에서 그를 봤다. 분명 그가 틀림없었다. 아마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신을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상사를 찾으면 된다.

조나단은 일어나 앉았다.

상사에게 헤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 된다. 그럼 상사는 조나단을 대신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다.

9:15

조나단은 조심히 집안으로 들어갔다. 찬 바깥공기를 쫓고 나니 집안은 덥고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이든 군인은 이제 바닥에 대자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머지 군인들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벽난로의 불씨는 약해졌지만 조나단이 방안을 보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테이블 옆에 있는 아이를 살피었다. 조나단은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었다.

조나단은 문으로 가서 열어두고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조나단은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아이가 누워있는 상자를 꺼냈다. 그러자 상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젊은 군인이 뒤척였다. 조나단은 꿈쩍도 할 수 없었다. 조나단은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아이의 몸 밑으로 팔을 집어넣어 아이를 일으켜 앉혔다. 아이는 살짝 눈을 뜨고는 조나단을 보자 안심한 듯 다시 눈을 감았다.

조나단은 아이에게 팔을 돌려 아이를 어깨에 둘러맸다. 전보다 아이가 무겁게 느껴졌다.

조나단은 문에 잠시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다 그는 자신이 뭔가 빠트렸다는 걸 알았다. 바로 그의 총이었다. 그는 총을 가져갈까 잠시 생각하다가 이내 아이와 총 둘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게다가 그의 총은 이미 쓸 수 없을 만큼 젖어버렸다. 그는 몸을 돌려 문밖으로 걸어 나가 조용히 문을 닫았다.

9:30

조나단은 달빛에 감사함을 느끼며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업고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다. 그는 막연하게 들판을 가로질러 가면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가다가 몇 번이고 멈춰서 낮에 왔던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했다.

조나단의 계획은 단 하나, 길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일단 길을 찾으면 남쪽으로 갈 생각이었다. 그는 그렇게 가다보면 금세 아는 길이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든 상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조나단은 아이를 반대쪽 어깨에 옮겨 댔다. 처음보다는 비교적 시간이 덜 들었다. 조나단은 목적지까지 아이를 들고 갈 순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힘당는데까지는 해 봐야 했다.

조나단은 뒤를 돌아봤다. 집 창문에 비치는 불빛이 이제는 노란 점처럼 아득하게 보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아이를 잘 둘러메고는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다.

9:45

조나단은 나무 울타리에 부딪혔다. 그는 놀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탈출의 첫 번째 단계를 무사히 끝냈다. 그는 안전하게 도망쳤고 적군은 그와 아이가 도망간 걸 모르고 있었다.

울타리를 넘기가 힘들었다. 조나단은 아이를 안고서 넘을 수는 없었다. 그는 먼저 아이를 들어 난간에 얹히고 울타리 너머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는 팔이 눌러 아팠지만 해냈다. 아이는 깨지 않았다.

그런 다음 조나단은 울타리를 넘어갔다. 그는 울타리를 넘자 다시 아이를 둘러댔다. 그는 아이를 최대한 어깨에 높이 들어올렸다. 아이는 살짝 뒤척이며 눈을 뜨고는 작게 웅얼거렸다. 그러더니 조나단의 목에 파고들더니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10:10

어디로 가야하지? 조나단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가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거라고는 어둠에 비치는 나무의 실루엣뿐이었다. 그는 마치 드넓은 동굴에 와있

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멀지않은 곳에 길가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또 얼마나 가야하는 걸까?

조나단은 한 바퀴를 빙 돌아봤지만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오히려 혼란만 더할 뿐이었다.

조나단은 잠시 멈춰 서서 여전히 자고 있는 아이를 고쳐 메고는 힘들게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든, 어디로든 가야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했다.

10:15

조나단이 숲속을 걸자 어둠이 깊어졌다. 조나단은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나무 그림자에 깜짝 놀랐다.

높이 뜬 초승달이 보였다가 사라졌다. 숲의 소리가 들렸다. 어떤 때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또 어떤 때는 곤충의 날갯짓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때도 있었다.

조나단은 계속 길을 찾았다. 몇 번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진 않았다. 그는 가던 길에 몇 번이고 아이를 내려놓고 쉬어야했다. 그는 쉬고 나면 다시 일어서 아이를 둘러메고는 걸어갔다.

조나단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가도 가도 같은 길인 것 같았다. 조나단은 몇 번이고 자신에게 되물었다. 난 어디로 가는 거지? 이 길이 맞긴한 걸까?

한 시간쯤 지났을까 조나단은 드디어 빛을 발견했다.

11:20

그는 처음에 자신이 무엇을 본건지 알 수 없었다. 빛은 너무 작았고 번쩍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나단은 서서 가만히 기다렸다. 그는 아이를 내려놓고 빛을 봤던 곳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하지만 빛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

조나단이 그저 헛것을 봤구나 생각할 때쯤 다시 빛이 깜빡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들었다.

조나단은 다시 아이를 둘러봤다. 그는 팔이 아팠지만 아이를 꼭 잡고는 조심조심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11:25

그는 불빛을 봤다. 낮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었다. 조나단은 초조하게 기다렸다. 어깨에 메고 있던 아이가 뒤척이며 소리를 냈다. 조나단이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자 아이는 다시 조용해졌다. 조나단은 불빛을 쳐다보며 가만히 귀 기울였다.

그는 다른 혜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 편, 제발 우리 편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조나단은 기도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살금살금 어둠속을 나아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자 대여섯 명 정도가 웅크리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조나단은 살금살금 다가갔다. 조용히 속삭이는 말이 들렸다. 그는 대체 무슨 말인지 들어 보려 했다. 독일어인가? 아님 영어?

“Halt!”

누군가 불쑥 나타났다. 조나단은 달아나고 싶은 마음에 급히 몸을 돌렸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길을 막았고 조나단에게 불을 비쳤다. 바로 상사였다.

11:35

여덟 명의 사람들이 들뜬 모습으로 조나단을 에워쌌다. 몇 명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또 몇 명은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조나단을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밀치기도 했고 또 만져보기도 했다.

“여기서 뭐하는 거냐?” 상사가 따지듯 물었다. “이름이 뭐지? 어디서 온 거냐?”

“주막에서 우리랑 함께 있었소.” 누군가가 외쳤다 “사라졌던 아이요. 그 달아났던 녀석이요. 헤센이 뒤쫓아 가던 녀석 말이오!”

상사는 누군가 들고 있던 횃불을 획 빼앗아 조나단에게 가져다 댔다. 조나단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 같았다. 상사는 잠시 조나단을 쳐다봤다. 불에 비치는 그의 얼굴이 가면처럼 보였다. 그가 횃불을 치웠다.

“어디 있었던 거냐?” 상사가 쏘아붙이듯 물었다.

조나단은 너무 지쳐 말할 힘도 없었고 그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잠시 쪽 훑어봤다. 모두 오전에 있던 전투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봉대를 감고 있었다. 조나단은 아이를 꼭 잡았다.

“어디있었다고 물었다.” 상사가 다시 한 번 쏘아붙였다.

“길 너머에 있었어요.” 조나단은 눈물을 참으며 겨우 대답했다. “전투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후퇴할 때 전... 전 달아났어요... 세 명의 헤센에게 잡혔고... 포로가 됐어요... 전 겨우 달아났어요...” 조나단은 더듬더듬 말했다.

“저 아이는 누구냐?” 상사가 알아야겠다는 듯 조나단이 업고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온 거냐?”

조나단은 상사가 자신을 비난하는 듯 한 기분이 들었다.

“헤센이 저를 어떤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러니깐 집이었어요.”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전 이 아이를 지금까지 업고 왔어요. 그러니깐 제 말은 이 아이를 내려놓고 싶어요. 너무 배도 고프고...”

사람들은 조나단을 다독이며 길을 비켜줬고 조나단은 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나단은 불 앞에 아이를 조심히 내려놓았다. 아이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다. 아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에 겁을 먹고는 조나단을 잡은 채 놓지 않았다. 조나단은 아이를 진정시키려 옆에 앉았다. 그는 피곤이 몰려왔다.

사람들은 궁금함을 못이긴 듯 다시 조나단의 가까이로 다가왔다.

“자 여기.” 한 남자가 조나단에게 옥수수 빵을 건네주며 말했다. 조나단은 감사히 받은 후 빵을 잘라 아이에게 주고 남은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상사가 조나단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 세 명의 헤센 말이다.” 그는 다급함을 숨기지 않고 말했다. “그들과 어디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조나단은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같은 편과 있는 지금 상황이 감사했지만 자신은 어쨌든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피곤을 쫓아보려 애쓰며 상사를 올려다봤다. “저쪽으로 얼마쯤 가야해요.”

“얼마나?”

조나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얼마간 걷긴 했어요. 대체 그들이 제게 뭘 하려했던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절 죽일 거라 생각했어요. 절 밧줄에 묶고 있어서 달아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잠들 때 까지는요. 그들은 영어를 전혀 못했어요. 전혀요. 한마디도요. 그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단 하나도요. 그저 느낌이지만 어감이 나빴어요.” 조나단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다. 사람들은 조나단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상사를 쳐다봤다.

조나단은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다. “그 길가에서 아저씨를 본 게 확실해요. 짙은 안개사이로 보긴 했지만. 아저씨는 저를 못 보셨나요? 전 그들과 바로 거기 있었어요. 전 줄에 묶여있어서 달아날 수 없었어요. 전...” 조나단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전 아저씨를 소리쳐 부르려고 했어요.”

상사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조나단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너를 봤다.” 상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난 혼자였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 얘기해라. 그 다음 어떻게 됐는지.”

조나단은 눈을 감고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정리했다. “우린 거기서 좀 더 멀리 갔어요. 한 집을 찾았어요. 소 울음소리를 따라 그곳까지 갔어요. 제가 소젖을 짜줬어요. 그들은... 그러니깐 그때까진 절 믿는 거 같았어요.” 조나단은 고백하듯 말했다. “안개가 너무 심했어요. 대체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은 나중에 저를 다시 밧줄로 묶었어요. 제가 그 밧줄을 풀었어요.” 조나단은 위를 올려다보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얘기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조나단은 다시 상사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 집에서 저 아이를 찾은 거냐?”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도 있었니?”

조나단은 깜빡 잠이 들 뻔 했다. 그가 화들짝 깨며 말했다. “네?”

“다른 사람도 있었냐고 물었다.”

조나단은 주변을 둘러봤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말한 것과 관련 있는 걸까? 상사의 다시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다급한 듯 질문을 했다. 조나단은 상사가 자신을 쳐다보는 게 불편했다.

“누구 봤냐는 말이다.” 상사가 다시 물었다.

조나단은 그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누구?”

“아이의 부모님이요.” 조나단은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이의 부모님 같았어요. 죽어있었어요. 둘 다요. 살해당했어요. 제가 들판 옆에서 찾았어요. 거기 버려져 있었어요.”

남자들이 웅성됐다.

“그러니깐... 제 생각에... 제 말은... 그자들이 죽인 것 같았어요. 그들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그들은 신경을 쓰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요. 한 명은, 그러니깐 약간 상냥한 젊은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은 기도도 했어요. 기도처럼 들리긴 했지만 아닐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조나단은 말하다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조나단은 아이에게 고갯짓을 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몇 번이나요. 하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요. 어쨌든 전 그분들을 물어줬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조나단은 고개를 들고 주변을 봤다. 모두들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몇몇은 불편한 듯 자리를 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조나단이 물었다. “전투가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조나단은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가 완전히 진거죠? 그런 거죠?”

“그럴 리가.” 한 남자가 재빨리 반박했다. “그들이 졌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조나단이 소리쳤다. “그들이 이긴 게 아닌가요?” 조나단은 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봤다.

“우리가 이겼다.” 상사가 말했다. “그들을 완전히 물리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돌아간 거다.”

“꽂지가 빠지게 돌아갔지.” 누군가 말했다.

“너를 뒤쫓아 가던 세 명은 빼고 말이다.” 다른 이가 덧붙여 말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겠지. 그래서 포로로 잡으려고 너를 쫓아 간 거지.”

조나단은 순간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 걸까요?” 조나단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 너를 포로로 잡아서 협상하려던 거지.” 누군가 말했다.

조나단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우린 그자들이 널 쫓아간 걸 보고는 계속 찾았단다.”

“저도 찾았나요?” 조나단이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가 널 버리고 간 거라 생각한 거니? 아니란다.”

“몰랐어요.” 조나단은 안도감을 느꼈다. “전 우리가 졌다고 생각했어요.”

“이겼어. 그자들이야말로 겁먹고 꽂지가 빠지게 달아났지. 우리가 아니라. 그렇지?”

조나단은 죄책감이 들었다. “전 달아났어요.”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말거라.” 넌 지금 여기 있어. 걱정 안 해도 된다.” 한 남자가 말했다.

여전히 조나단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상사는 조나단의 주의를 돌리려 어깨를 흔들었다. “그 세 명, 지금 어디 있나?” 상사가 물었다.

“그 집에 있어요,”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며 조나단이 말했다.

“반드시 지금 그자들을 잡아와야해.”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조나단이 답했다. “제가 달아났을 때는 너무 어두웠어요. 길 저편 어느 쪽이었는데... 그것 말고는 모르겠어요.” 그는 이제 그만 자고 싶었다. 어디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다 빠르게 질문이 쏟아졌다

“우리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 걸 알고 있나? 우리가 나타날 거라는 걸 알까?” 조

나단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갑자기 어지러웠다.

상사가 한 손을 꺼내 조나단의 턱을 감싸 쥐고는 돌렸다. 이제 모두가 조나단을 보고 있었다. “보초가 있었나?” 상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럼 쉬운 싸움이 되겠어.” 누군가 주장했다. “상사가 앞장서야지. 아주 수월하겠어.”

“네가 달아날 때, 그자들이 뭘 하고 있었나?” 상사는 다른 말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자고 있었어요.” 조나단이 말했다. 그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났다. “전 그자들을 죽이려 했어요.” 조나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전 그러니깐... 죽일 수 없었어요.” 조나단은 아이를 쳐다봤다. 아이의 시선은 상사를 향해있었다. 아이는 떨고 있었고 조나단은 그 이유가 궁금했다.

“총은 어찌됐나?” 상사가 물었다.

“총과 아이를 둘 다 들 수가 없었어요.” 조나단은 당황해하며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조나단은 머리를 흔들었다. “전 우리가 완전히 졌다고 생각했어요. 진짜예요.” 조나단은 남자들과 상사를 차례로 올려다봤다. 상사는 아직도 조나단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을 잡으러 갈건가요? 헤센을요?”

“네가 앞장서라. 그러면 할 수 있지.” 한 남자가 말했다.

조나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길도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일단 지금 전 너무 지쳤어요.”

상사가 자신의 손을 거두었다. “중요한건 그게 아니지. 내가 그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안다고요?” 조나단은 너무 놀랐다.

상사는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나단이 그를 바라봤다. 뭔가 잘못됐다. 조나단의 마음속에 의심의 불씨가 생겼다. 아이는 아직도 상사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조나단은 누군가 말하길 기다렸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결국 조나단이 먼저 물었다. “대체 어떻게요?”

“뭐가 말이냐?” 상사가 되물었다.

“그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는 거죠?” 조나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잖아요. 따라왔던 건가요?”

상사는 답을 회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나단의 불안이 커져갔다. 그는 완전히 잠이 깨버렸다. 조나단은 남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다. 조금 전까지 보이던 미소는 사라졌다. 남자들은 초조하게 상사의 말을 기다렸다.

“따라 왔었어요?” 조나단이 다시 물었다. 순간 그는 자신이 정말 그 답을 원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상사가 고개를 획 돌리더니 남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어봤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내려 조나단을 쳐다봤다. “거기 있었다.” 그가 말했다.

“그 집이에요?”

“그래.”

“언제요?”

“전에.”

“전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어젯밤에 말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나단은 무서운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애썼다.

11:50

조나단은 침묵이 이어지자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가슴과 폐에 딱딱한 무언가가 꽉 들어찬 기분이 들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들은 토리당원들이오.” 마침내 상사가 말을 꺼냈다. 조나단에게 답을 한다기보다는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이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일단 그들이 말하는 바로는 그렇소.” 상사가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아이에게 불어로 말해보시오. 답을 줄 거요.”

“하지만 저 아이의 아버지는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트렌턴의 헤센을 위해 스파이 짓을 했소. 그자는 바로 스파이였소. 우리 공안위원회에서 알아냈소.” 상사

가 사람들에게 호소하듯 말을 이어갔다. “자 여러분은 독사를 찾아내면 어떻게 할 거요? 죽여야지. 안 그렇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작은 불빛이 일렁였다. 그 불빛 뒤로는 나무가 흔들렸다.

“그곳에는 저 아이의 형도 있었소.” 상사가 계속 말했다. “그는 달아났소. 헤센 수비대에게 가서 정보를 준 게 틀림없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듯 헤센을 끌고 온 건 그가 틀림없소. 복수를 하려 했겠지.” 그는 고개를 돌려 남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여러분 모두 그 점을 잘 알고 있을 거요. 전쟁은 그런 거지. 시민의 탈을 쓴 적이 바로 스파이요. 스파이를 찾으려면 처단해야하는 거요.”

“하지만 스나이더빌 위원회에 있는 제 친구들이 말하길 자신들은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했소. 그러니 바로 자네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요. 용기 있는 자네들이 말이요.” 그는 문득 조나단이 떠올랐는지 조나단을 쳐다보더니 물었다. “자 이제 답이 됐나?”

“다를 게 뭐가 있소?”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그자들이 자고 있다니깐 지금 잡아와야 하오. 적은 셋뿐이요. 우리는 지금 다 모여 있소. 안 그렇소? 쉬운 싸움이지.”

조나단은 힘들에 일어서고는 허리를 숙여 아이를 들어올렸다.

“전 집에 가고 싶어요.” 조나단이 겨우 말을 꺼냈다.

상사가 조나단을 훑어보며 말했다. “먼저 일을 끝내야지. 네가 우릴 도와야한다. 네 도움이 필요해.”

April 4, 1778

12:30

상사와 다른 사람들이 준비를 하는 동안 프랑스 아저씨는 조나단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검붉은 피가 얼룩덜룩했다. 또 다른 아저씨가 근처에 서서 그들을 지켜봤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프랑스 아저씨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넌 옳은 일을 한 거란다.” 다른 아저씨가 말했다.

“저 상사말이야.” 프랑스 아저씨가 말을 계속했다. “저 사람은 전쟁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말이야.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그가 다른 아저씨를 올려다보자 다른 아저씨는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 아저씨가 말을 이어갔다. “그래. 어려운 문제야. 너무 힘들지, 아무렴. 하지만 절대 자책해서는 안 된다 애야.”

“늘 일어나는 일이지.” 다른 아저씨가 말했다.

“군인은 말이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죽여야 할 수도 있어. 그게 현실이야.” 프랑스 아저씨가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아.” 다른 아저씨가 동의했다.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진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아무도 널 탓하지 않을 거다.” 다른 아저씨가 말했다.

“그럴까요?” 조나단이 프랑스 아저씨에게 물었다.

프랑스 아저씨는 그럴 리가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더니 그는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Et toi, mon beau,*” 그가 말했다. “*Ca va?*”

아이는 깜짝 놀라며 위를 올려다봤다. 그의 얼굴이 안도한 듯 환해졌다. “*Oh, monsieur,*”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mes parents...*” 아이는 빠르게 말을 쏟아내며 몸을 떨기도 했고 훌쩍이다가 흐느껴 울기도 했다. 조나단은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지켜봤다.

“알겠니?” 프랑스 아저씨가 조나단에게 말했다. “아이가 많을 걸 말해주더구나.”

프랑스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기도 하고 이따금씩 손을 뺀어 아이의 얼굴과 손을 쓰다듬기도 하며 주의 깊게 들었다. 아이가 말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아저씨는 하품을 하더니 조나단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거라.”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가버렸다.

아이는 프랑스 아저씨에게 계속 뭔가를 얘기했다. 그는 얘기를 하며 프랑스 아저씨에게 다가갔고 이내 아저씨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아저씨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게 그렇게 된 거라고요?” 조나단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깐 저 상사 아저씨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죠?”

프랑스 아저씨는 대답하기 전에 주변을 살폈다.

“상사와 다른 사람들이지.” 아저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대답했다. “그 위원회라는 사람들 말이다. 상사가 책임을 맡고 있었지. 여기서처럼 말이다. 모임이 있었다는 것 같구나. 그러니깐 내 생각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하지? 언쟁 말이다... 잘 모르겠다. 아마 여기 있던 그 남자가...” 프랑스 아저씨는 말을 하며 그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졌다.

조나단은 털썩하고 앉아 들은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했다. 그러다가 잠시 후 조나단이 말을 꺼냈다. “그 언덕에서 있었던 싸움에서, 우리 편 중 누군가 죽었나요?”

“음, 그래 맞아. 한 사람이 있었지.” 프랑스 아저씨가 말했다. “그리고 어깨를

많이 다친 사람도 있었다. 또 나 같은 경우는...” 그가 머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
“거의 죽을 뻔 했어.”

조나단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는 불빛 때문에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주의 깊게 상사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들은 이따금씩 조나단이 있는 곳을 쳐다보기도 했다. 조나단은 죽었다던 사람이 아버지 친구분이라는 걸 알았다. 조나단은 그 순간 아저씨가 전투를 하다 바닥으로 쓰러지던 모습과 피로 얼룩진 셔츠를 입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때문에 조나단은 결국 아이의 부모님까지 떠올리게 됐다. 조나단은 바닥에 누워있던 두 사람을 발견했었다.

조나단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편일까?’

그 순간, 주막에 있을 때와 진군할 때 봤던 상사에 대한 느낌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사람들이 그를 믿고 있나요?” 조나단이 프랑스 아저씨에게 물었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

“상사 아저씨요.”

프랑스 아저씨는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돌려 캠프 저편을 살펴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조나단을 자세히 봤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구나. 이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아무렴.”

“얘야. 상사는 말이다, 잘 알려진 사람이지, 그러니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싸움을 잘 아는 사람이다. 용감하게 말이다. 일단 전투가 일어나면 모두들 그를 원하게 되지. 확실해. 하지만 전투가 끝나면 말이다, 그러니깐 아니다. 그건 다른 문제 같구나. 아무튼 아마 넌 그가 함께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게 될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조나단이 물었다.

“걱정 말거라.” 아저씨가 말했다. “우리 집에 데려갈 거란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있을 아이의 형을 찾아볼 생각이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좀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우린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거다. 나와 내 아내 말이다.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나저나 넌?” 그는 조나단에게 물었다. “넌 어떻게 할 거냐?” 시선을 두었다.

조나단은 먼저 아저씨를 본 후 바닥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는 손을 바닥에 놓았다. 차가웠다. 그는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다.

4:30

조나단은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깬다. 그는 잠들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었다.

상사가 몸을 굽혀 조나단을 살짝 흔들며 깨웠다. 조나단은 잠시 비몽사몽하다가 이내 상사가 옥수수 빵을 건넸다는 걸 알아차렸다.

조나단은 빵을 받아들고는 상사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며 천천히 먹었다.

“힘들었을 거다. 그렇지?” 상사가 말을 꺼냈다.

조나단은 생각지도 않게 다정함이 묻어난 목소리에 당황하여 먹던 걸 멈추고 그를 올려다봤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주름살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는 무척이나 피곤해 보였다. 조나단은 나이든 군인이 생각났다. 어제 봤을 때부터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사의 녹색 재킷은 어깨 부분이 찢겨져 있었고 남아빠진 안감이 다 보였다. 그의 모자는 보이지 않았다. 조나단은 그가 보이는 모습처럼 가난한 건지 궁금했다.

“몇 살이니?” 상사가 물었다.

“열다섯 살이요.”

“잘 들어라.” 상사가 말했다.

조나단은 그의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는 그의 얼굴에서 슬픔을 봤다.

“넌 아주 잘해냈다.” 그가 말했다.

“제가요?”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더 먹을 거니?” 그가 옥수수 빵을 건넸다.

조나단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말?”

“네.”

“그럼 가도 되는 거니?”

조나단은 고개를 떨궜다.

“준비됐니?”

조나단은 고개를 내린 채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가고 싶지 않아요.”

“넌 가야해.”

“왜요?”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거다.” 상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넌 군인이다. 네가 필요해.”

“뭐 때문이에요?”

“알게 될 거다.” 상사가 손을 내밀었다. 조나단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고 단단한 느낌에 놀랐다. 조나단은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사람들 대부분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조나단은 아이가 옆에 없자 갑자기 허전함을 느꼈다.

“프랑스인이 아이를 보살피고 있어. 그들은 같이 갔어.”

“저도 가고 싶어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제발요.” 조나단은 상사를 쳐다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시선을 옮겨 모여 있는 아저씨들을 봤다. 그들 중 한 명은 횃불을 들고 있었다. 그는 조나단이 잠들기 전에 프랑스 아저씨와 얘기를 나눌 때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머스킷 총을 들고 있었다. 모두 기다리고 있었다.

상사는 손을 뺐어 조나단의 팔을 잡고는 천천히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이제 끝을 내야지,” 그가 무미진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5:00

상사는 왼손을 조나단의 어깨에 올린 채 그의 오른손으로는 머스킷 총을 들고 있었다. 조나단은 그의 손길이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그가 손을 올리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조나단은 자신이 달아나려 한다면 그가 언제

든지 그 즉시 자신을 붙잡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오른편 뒤쪽으로는 햇불을 든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빛이라고는 그 햇불뿐이었고 그 빛은 작아서 눈앞의 길을 겨우 비춰줄 정도였다. 조나단은 마치 깊은 동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은 상사의 속도에 맞춰 조용히 서둘러 이동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들의 숨죽인 발걸음 소리와 마른 잔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낙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그들은 길가에 다다랐다. 머리 위로는 밝은 달이 떠있었다. 넓은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상사는 헤센이 달아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그들을 재촉했다. 상사는 동이를 무렵 때쯤 도착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지금 총을 준비하도록 하시오.” 상사가 명령했다.

준비가 끝났다.

“그들을 잡아서 몸값이나 뭐 인질교환을 하려는 거요?” 그들이 이동하던 중 한 남자가 물었다.

“상황을 봐야겠지. 상사가 답했다.

“우리 중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유감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대체 무슨 소리요?” 반감이 묻어 있는 목소리였다. “대화할 것도 없소.”

“이제 얘기는 그만하시오.” 상사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리고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오.”

그는 조나단을 그의 곁에 두고 앞장서 갔다.

5:30

상사가 한 손을 들고는 일행을 멈춰 세웠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저쪽이요.” 상사가 조용히 말했다.

“확실한 거요?”

“물론이요.”

“얼마나 가면 되는 거요?”

“길을 따라 몇 백 야드 정도 가면 그들이 머무는 곳에 이를 거요. 일단은 거기까지요.”

“거긴 어떤 곳이요?”

조나단은 처음으로 상사가 자신의 어깨를 힘주어 움켜쥐는 걸 느꼈다. “네가 말해라.” 상사가 말했다.

“그러니깐...작..작은 집이에요.” 조나단은 말을 더듬었다.

“더 크게.”

“작은 집이에요.”

“뒷문은?”

조나단은 머뭇거렸다.

“말씀드려.” 상사가 말했다.

“없어요.”

“그러니깐 그자들이 집안에서 자고 있다는 거지?”

“네.”

“독 안에 든 쥐군.”

상사가 조나단을 살짝 밀었다.

“이쪽이요.” 상사가 말했다.

5:35

그들은 길을 따라 이동하다 숲을 지나 곧장 울타리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에 멈춰 서서 들판너머를 봤다. 집의 실루엣이 작지만 뚜렷하게 보였다. 창호지로 된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바로 저기군.” 누군가 말했다.

“아주 쉽겠어.”

“조용히 하시오.” 상사가 화난 목소리로 낮게 말했다.

그들은 텅 빈 들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있었다. 올빼미가 두 번 울었다. 조나단은 사람들이 내뿜는 숨소리와 초조한 듯 발걸음을 살짝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보려고 했다. 그는 그들의 기분을 알고 싶었다. 조나단은 지금 그 자리를 벗어나고픈 사람이 자신뿐인 건지 궁금했다.

조나단은 하늘을 쳐다봤다. 동쪽 하늘에 회색빛 안개가 열게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는 앞문만 포위하면 될 거요.” 상사가 차분히 말했다. “이 아이가 다른 출구는 없다고 했소. 내 기억에도 그랬고. 우리는 이렇게 할 거요. 그러니깐 한 줄로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거요. 총을 장전하고 문을 겨누고 있으시오. 저들이 이미 깨어나서 태세를 갖췄을지도 모르오.”

“그냥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요?”

“너무 위험하오. 아마 저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오. 아이가 문으로 가서 열고 그자들이 뭘 하는지 보면 될 거요.” 상사는 조나단이 마치 그 자리에 없다는 듯이 말을 했다. “그러니깐 그자들이 만약 깨어난다 해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요.” 상사가 말을 이어갔다.

“이 아이를 묶고 있었다더니, 아니오?” 누군가 물었다.

“맞소. 아마 그자들이 이미 아이가 없어진 걸 눈치 챘을지도 모르지.”

“그자들이 뭔가 의심할 것 같소.”

“그자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고 아이가 말했소.” 상사가 말했다. “그렇지?” 그가 조나단에게 물었다.

모두 조나단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렇지?” 상사가 되물었다.

조나단은 자신에게 뭘 하라는 걸 깨닫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상사가 말했다. “이제, 그냥 편안히 걸어가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방해 되지 않게 비켜서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곧장 문으로 가서 문을 열면 된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오는 거야. 그 이상은 됐다. 집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그자들이 자고 있는지만 보는 거지. 그런 다음 재빨리 비켜서라.”

“재빨리.” 누군가의 동의하는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이해한 거니?” 상사가 조나단에게 물었다.

조나단은 눈을 감았다. 그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 상사가 힘차게 말을 이어갔다. “가자. 해보는 거다. 그나저나 조심해야 한다. 듣고 있는 거냐?”

5:38

조나단은 너무나도 가기 싫은 마음을 안고 울타리 앞에 서있었다.

“내말을 듣지 않는 거냐?” 상사가 말했다. “지금이다.”

“애야, 어서.” 누군가가 격려했다. “괜찮을 거다. 네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서,” 상사가 강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조나단은 천천히 울타리를 넘어 반대쪽으로 뛰어내렸다. 바로 그때 상사가 울타리 너머로 손을 뻗더니 잠시 조나단의 팔을 움켜쥐었다.

“내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가 말했다. “그럼 넌 안전할 거다.”

조나단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그전에 넌 달아났었어.” 상사가 조나단에게 말했다. “그렇지?”

조나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사의 목소리는 낮았다. “자. 네가 할 일은 저들이 자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뿐이다. 그게 다야.”

조나단은 무서워서 올려다 볼 수 없었다.

“애야, 말을 듣고 있는 거니?” 남자들 중 하나가 외쳤다.

“저들은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조나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네가 오고 싶다 고했었지, 아니냐? 싸우고 싶다고 했었지?” 상사가 물었다. “대답해라!”

“네.”

“걱정 말거라.” 누군가의 격려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보고 있을 거야.”

조나단은 가만히 서있었다.

상사가 울타리 너머로 다시 손을 뻗더니 조나단을 너무도 세게 돌려세웠고 그 때문에 조나단은 휘청거렸다. 하지만 조나단은 뒤를 돌아봤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상사가 손으로 짐을 가리켰다. 조나단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제발요.” 조나단이 사람들에게 애원하며 말했다. 그는 볼을 타고 눈물이 흐르는 걸 알 수 있었다.

상사가 총의 공이치기를 잡아당겼다. 조나단은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기분이 퍼지는 걸 느꼈다.

“가, 어서!” 상사가 말했다.

조나단은 천천히 뒤를 돌아 짐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5:45

조나단은 집까지 반쯤 걸어갔을 때쯤 멈춰서 뒤를 돌아봤다. 미국인들은 검붉은 하늘아래 마치 공동묘지 비석과 같은 모습으로 울타리 너머에 줄지어 서있었다. 그들의 머스킷총은 검은 막대기 같았다. 주머니쥐 같은 그들의 눈만이 희미하게 빛을 담고 있었다.

그는 헛간 옆에서 소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시 미국인 아저씨들을 봤다. 상사가 손을 들어 계속 가라고 그를 재촉했다.

조나단은 몸을 돌려 다시 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는 현관에 발을 던고 올라섰다. 살짝 삐걱 소리가 났다. 조나단은 문에 있는 걸쇠에 손을 올렸다. 그는 다시 뒤를 돌아보고는 숨을 가다듬고 문을 밀었다. 문이 활짝 열렸다. 조나단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고는 안으로 들어갔다.

5:50

벽벽난로에서는 은은한 불빛만 내고 있었다. 방안에서는 나무 타는 냄새가 났

다. 조나단이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는 헤센군의 숨소리가 전부였다. 그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가 달아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젊은 군인은 침대에, 키 큰 군인은 벽난로 앞의 바닥에, 나이든 군인은 여전히 발목에 줄을 묶은 채로 구석에 있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조나단이 사라졌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조나단은 자신이 그 다음 뭘 해야 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뒤를 돌아 상사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헤센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하면 된다.

그는 다시 방안을 살펴보고는 한숨을 쉬더니 몸을 돌려 문을 향해 움직였다. 나이든 군인이 잠결에 중얼거렸다. 그 소리에 조나단은 움직임을 멈추고 다시 몸을 틀었다. 그는 자고 있던 군인을 쳐다봤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고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 일었다.

그는 누구 편인 걸까?

조나단은 천천히 손을 뻗어 문에 살짝 손을 가져다댔다. 문이 닫히고 조나단은 집안에 남겨졌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했던 일을 이해해보려고 했다.

그런 후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서 걸쇠를 잠갔다. 그는 서둘러 젊은 군인이 자고 있는 곳으로 갔다. 조나단은 몸을 숙여 그를 흔들었다.

젊은 군인은 약간 꿈 소리를 내며 반쯤 눈을 뜨고는 잠시 잠에서 깬 듯하더니 이내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조나단은 이번에는 좀 더 세 개 그의 팔을 흔들었다. 젊은 군인은 다시 눈을 뜨고는 마침내 간신히 조나단에게 시선을 두었다. 그는 겨우 팔꿈치로 기대 몸을 일으켰다.

“Was gibt's?” 그가 졸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이예요.” 조나단이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국인들이요...군인이라고요...Soldat!” 그는 전에 젊은 군인이 알려줬던 말을 기억해 냈다. “Soldat” 조나단이 문을 가리키며 같은 말을 되풀이 했다.

“미국인들이 바로 밖에 있어요.” 조나단이 말했다. 그는 다시 문을 가리켰다. “항복하지 않으면 아저씨들을 죽일 거예요. 군인이라고요. Soldat!”

젊은 군인은 순간 정신이 들어 몸을 일으켜 앉더니 조나단을 세계 밀쳤고 그 때문에 조나단은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젊은 군인은 눈을 크게 뜨고 방안을 둘러봤다. 그러더니 그는 벌떡 일어서서 문으로 가더니 문을 열려고 했다. 그는 더듬더듬 걸쇠를 풀고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더니 재빨리 문을 닫았다.

“Auf! Auf!” 그가 동료들을 향해 이리저리 움직이며 소리쳤다. “Angriff! Angriff!”

다른 두 헤센이 몸일 일으키며 멍하니 젊은 군인을 쳐다봤다.

“Die Amerikaner! Sie sind drassen!” 젊은 군인이 소리쳤다.

그의 말을 되받아치기라도 하는 듯 집을 향해 망치질과 같은 총알이 빗발쳤다.

다른 두 군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가구들을 치우며 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조나단은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잔뜩 겁먹은 채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집을 향해 두 번째로 총알이 빗발쳤다. 한 발이 유지로 된 창문을 뚫고 벽난로를 강타했고 벽난로에 크게 금이 갔다. 돌덩어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항복해라!”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상사의 목소리였다. “너희들은 포위됐다. 항복해라. 목숨만은 살려준다.”

헤센들은 단추도 채우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완전히 어수선한 모습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손에 총을 들고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고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항복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다.” 상사가 다시 말했다.

조나단은 잔뜩 겁먹은 채로 듣고 있었다. 상사는 헤센이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조나단이 전에 그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이든 군인이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가방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고 탄약통과 화약을 거칠게 잡아 꺼내더니 총을 장전하고 총검을 끼웠다. 전에 조나단을 묶고 있었던 밧줄은 나이든 군인에 발목에 묶여 있다가 몸을 비트는 뱀처럼 스르르 풀어졌다.

다른 헤센들은 허둥지둥 자신들의 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이 준비가 끝나자 나이든 군인은 줄을 질질 끌며 앞으로 가더니 문을 핵 잡아당겨 열고는 한쪽

으로 뛰었다.

그는 다른 두 헤센에게 재빨리 뭐라고 말했고 그들은 그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다. 나이든 군인은 말을 하면서도 총을 보며 제대로 장전이 됐는지 확인했다.

조나단은 그들이 맞서 싸워서 탈출하려고 한다는 걸 깨닫고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러다가는 저들을 당신들을 죽일 거예요. 정말이라고요. 그냥 행복하세요. 행복하라고요!”

나이든 군인은 조나단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몸을 돌려 단 두 걸음 만에 방을 가로질러 조나단을 붙잡았다. 조나단은 재빨리 몸을 움직여 문을 향해 기어갔다. 나이든 군인이 조나단을 잡았다고 놓쳤고 다시 그를 움켜잡았다. 그는 조나단의 발을 잡고 뒤로 잡아끌더니 일으켜 세웠다. 그는 무쇠 같은 힘으로 즉각 조나단의 목에 팔을 둘러 방패 마냥 자신의 앞으로 조나단을 들어 올려 세웠다.

조나단은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비틀었고 나이든 헤센의 팔을 할퀴었다. 조나단이 저항하는 동안 나이든 군인은 다른 헤센에게 소리치며 명령을 내렸다.

조나단은 격렬하게 몸을 비틀며 몸을 돌리거나 발로 차보려고 했고 심지어 나이든 군인의 팔을 물려고도 하며 벗어나길 시도했다. 나이든 헤센은 이에 맞서 무릎을 꿇싸게 들어 올려 조나단의 등허리를 쳤다. 심한 고통을 느낀 조나단의 몸부림이 약해졌다. 나이든 헤센은 그를 더 단단히 붙잡았다.

젊은 군인이 소리쳤다. “*Lass ihn los! Lass ihn los!*”

나이든 군인이 고함치며 답했다. 젊은 군인은 가슴을 크게 들썩이며 한 손으로는 땀에 젖은 이마와 머리카락 그리고 입 주변을 문지르며 가만히 서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나이든 군인이 날카롭게 뭐라고 말했다.

조나단은 자신이 달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큰소리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저들이 아저씨들을 죽일 거예요!”

나이든 군인은 그 말을 듣고 조나단의 목을 더 단단히 조였고 그 때문에 조나단은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다.

“*Fertig?*” 나이든 군인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 팔을 조나단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나이든 군인은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총을 잡고 문을 향해 다가갔다. 다른 두 헤센도 뒤에서 따라왔다.

그들은 문 앞에 다다랐다. 조나단은 밖을 볼 수 있었다. 집 앞쪽으로 50피트 떨어진 곳에서 미국인들은 총을 어깨에 걸치고 문을 겨눈 채 반원모양으로 서있었다.

“Los!” 나이든 군인이 불평하듯 말을 하고는 문간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조나단을 우악스럽게 잡아당기면서 자기 팔로 조나단의 목에 둘러진 팔이 단단히 조였다. 조나단은 숨이 막혔다.

네 사람은, 그들의 팔과 다리와 총이 뒤엉켜지면서 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조나단은 바둥바둥 발 디딜 데를 찾으려 미국인들을 쳐다봤다. 그들은 총을 발사할 준비를 끝냈다. 나이든 군인이 조나단을 뒤에서 밀었다. 그들은 현관까지 걸음을 옮겨 맨 윗계단에 섰다.

조나단은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힘을 끌어 모아 격렬히 몸부림치고는 머리로 나이든 군인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그 순간 나이든 군인이 손을 놓쳤다. 조나단은 팔을 마구 휘둘렀다. 나이든 군인은 계단 끝에 넘어질 듯 불안하게 서 있다가 조나단을 놓치고 말았다. 조나단은 곧장 몸을 낮춰 달아나서는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이제 보호막이 사라져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 헤센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앞으로 가려고 했다. 조나단은, 아직도 나이든 군인의 발목에 묶여있으면서 움직여 다니는 줄처럼 뒤로 돌아섰다. 조나단은 충동적으로 손을 뻗어 줄을 잡으려고 했다. 조나단은 아주 잠깐 줄을 붙잡았다. 줄이 당겨지자 조나단은 손에 불이 나는 것 같았다.

나이든 군인이 발을 헛디더 넘어졌고 가까이 서있던 다른 두 헤센도 그와 엇히며 넘어졌다.

일제히 총성이 울렸다.

그러더니 적막이 감돌았다.

6:10

조나단은 주변을 돌아봤다. 이미 하얗게 날이 밝았다. 흠과 피로 더러워진 찢어진 군복을 입은 세 명의 헤센은 몸을 뒤엎킨 채 바닥에 엎드려있었다. 상사와 다른 미국인 아저씨들은 반원모양으로 모여서 죽은 헤센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나단은 총을 손에 들거나 어깨에 메고 있는 미국인 아저씨들이 몸을 돌려 천천히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가 보고 있는 동안 그들의 모습은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에 가려져 점점 희미해져갔다. 아무도 뒤돌아보거나 말을 하거나 멈춰 서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떠나갔다.

6:13

상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계속 쓰러진 헤센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들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러더니 그는 헤센의 총을 주워 모았다. 그는 몸을 일으키다 조나단이 집밖으로 나와 그의 옆에 서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넌 그들을 구해주려 했어. 그렇지?” 상사가 말했다.

“네.”

“그들이 널 죽일 수도 있었어.”

“죽이지 않았어요.”

상사는 조나단 너머에 있는 집과 돌아가는 사람들과 떠오르는 해를 차례대로 봤다. 그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자들은 어제 우리의 동료 한명을 죽였다. 그리고 넌 그들이 그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른다. 롱아일랜드에서 그들은 부상당한 사람들을 총검으로 찔렀다. 그자들은 군인이었다. 나 역시도 그렇고. 너도 그렇지. 넌 운이 좋았어, 그게 다야. 다른 건 없어.”

조나단은 그를 쳐다봤다. 상사도 반응을 해주려고 하였다. 갑자기 그가 돌아서서 말했다. “가서 네 총을 가져와라. 네 것이 아니야. 돌려줘야해.”

조나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몸을 돌려 집안으로 들어갔다. 조나단은 방에 널브러져 있는 파편 아래에 깔려 있는 총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는 천천히 파편들을 치우고 총을 양손으로 움켜잡았다. 그는 총을 내려다봤다. 그런 후 그는 총을 들어 올려 총열을 잡고 머리 뒤로 획 넘겼다. 조나단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돌로 된 벽난로에 총을 내리쳤다. 그 충격이 그의 뺨속까지 전해졌다. 그는 손에서 총을 거의 놓칠 뻔 했다. 분노가 뿔어져 나와 그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총을 더욱더 꼭 움켜지고 몇 번이고 돌을 내리쳤다.

개머리판이 쪼개졌다. 금속으로 된 부분이 구부러지고 산산조각이 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껴 울었다.

조나단은 그의 어깨를 움켜쥐는 손길을 느꼈다. “어서,” 상사가 말했다. “이제 갈 시 간이다.”

6:40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다.

조나단은 뒤쪽에서 걸었다. 아무도 그의 가까이에서 걷거나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방해받지 않았다. 차라리 그편이 나았다. 그는 걷고만 싶었다.

그들이 막사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부상당한 남자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적들이 달아나려고 했소.” 남자들 중 하나가 말했다. “항복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맞서 싸우려고 했소.”

“멍청한 놈들!”

조나단은 아이와 프랑스 아저씨를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다 그들이 이미 오래 전에 가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챙기고는 막사를 뒤로하고 북쪽으로 갔다.

그들은 걸으면서 두세 명씩 무리를 지어 이동했다. 조나단은 혼자서 걸었다. 어느 순간 상사가 다가오더니 그의 옆에서 걸으려고 했다.

조나단은 즉시 걸음을 멈췄다.

상사 역시 걸음을 멈췄다.

“저를 내버려두세요.” 조나단이 말했다.

상사는 잠시 당황하며 뭐라고 말을 꺼내다가 멈추고는 가버렸다. 그때서야 조나단은 상사의 말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다. 하지만 그 후 조나단은 혼자 남겨졌다.

9:30

조나단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에는 사람들 중 네 명만 남아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다. 조나단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깨닫자 걸음을 멈췄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상사를 찾았다. 하지만 상사 역시 보이지 않았다.

주막 주인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양손을 이리저리 흔들며 달려나왔다. “그들을 물리쳤소, 당신들이 해낸 거요!” 그가 소리쳤다. “멋지게 승리했소, 제군들. 축배를 들시다!”

그들 중 한명만 제안을 받아들였다.

얼마 후 주막 주인은 조나단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 너,” 그가 말했다. “네 아버지가 널 찾으러 왔었다. 허락받았다더니 아니냐? 짓궂구나. 이 녀석. 네 아버지 다리만 아니었다면 바로 쫓아갔을 거다. 네가 가서 속상해 하셨단다. 넌 아마 지금 당장 집으로 가고 싶어 테지, 아무렴.”

조나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주막주인은 기억이 났다.

“애야,” 그가 외쳤다. “내 총은 어땠니?”

조나단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았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어떻게 된 거니? 맹세한다더니 애야.”

조나단은 설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저 걸어가 버렸다.

“약속한 말은 지켜야 한다,” 주막 주인이 그를 향해 소리쳤다. “네 아버지를 찾아갈 거다!”

10:30

조나단은 집에 도착했다.

그가 집 앞 공터에 들어섰을 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움직이는 거라고는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뿐이었다. 잠시 조나단은 들어갈 준비를 하며 문을 살펴봤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 서있을 때 어렴풋이 뭔가를 부드럽게 자르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듣고 있었다. 팽이를 땅에 내리치는 소리였다. 마치 시계가 다시 째깍 거리는 것 같았다.

조나단은 몸을 돌려 들판으로 걸어갔고 숲 한가운데를 걷는 그의 발걸음이 그 소리와 속도를 맞췄다. 그 소리는 고통을 밀어내고 조나단을 가득 채웠다.

조나단은 마치 신기루를 보는 듯한 기분을 느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자신 같았다. 그 전날 성급히 들판을 떠나 달려가던 그 자신 같았다.

그는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숲에서 벗어나 들판 끝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에는 밭일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조나단은 조용히 그의 모습을, 절뚝거리며 천천히 걷는 모습과 약해진 다리로 걷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는 듯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의 눈길이 조나단에 멈추었다. 잠시 둘은 그저 서로를 바라봤고 마치 서로가 정말 그곳에 있는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조나단은 아버지의 눈에서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는 두려움을 봤다.

“너...너 다친 거니?” 그의 아버지가 더듬더듬 말을 꺼냈다.

조나단은 말이 나오지 않아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애야.” 그리고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마침내 조나단은 아버지의 두려움이 스스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랬다. 그것은 조나단을 위한 것이었다. 조나단이 해를 당하지 않기만을 바랐던 것이다.

불현듯 조나단은 더 많은 걸 깨달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 자신이 정말로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오, 그가 다시 그곳에 있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살아있었던 것이다.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다.

독일어 번역

3:47

Siehst du was?

뭔가 보입니까?

3:50

Er erschießt uns, wenn wir nicht vorsichtig sind.

조심하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쏘지도 모릅니다.

Weg von hier. Es ist blöd und gefährlich. Wir finden ihn nie.

여기서 벗어나라. 이건 멍청하고 위험해. 우린 그를 절대 찾을 수 없다.

Noch ein Paar Minuten.

조금만 더요.

Ich hab's satt.

난 지쳤어.

Mein Gott! Vor unseren Augen!

세상에! 바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Er ist nur ein Junge.

그저 어린 소년입니다.

Komm hierher!

이리와.

Idiot! Die verstehen nie. Komm hierher, Junge.

멍청이! 그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 이리와라, 애야.

Das ist besser.

그래야지.

Halt!

멈춰!

Wir sprechen kein Englisch. Warum sprichst du kein Deutsch?

우리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 네가 독일어로 아무 말이나 해보는 게 어떠니?

Dreh dich um!

뒤로 돌아!

Los, er macht vor Angst in die Hosen.

이봐, 그가 너무 겁을 먹고 바지에 오줌 싸고 있어.

Stech auf! Es tut dir keiner was.

일어나! 누구도 네게 어떤 짓도 하지 않을 거다.

4:01

Warte!

기다려.

Es ist ein shones Land.

멋진 나라야.

Los, geh!

어서, 움직여.

5:00

Steh auf!

일어나.

5:15

Wir haben uns verirrt.

우리 길을 잃었습니다.

Vielleicht sind wir geschlagen. Vielleicht sind wir die einzigen am Leben!

아마도 우리가 패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생존자일지도 모릅니다!

Gott helf uns!

신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5:20

O Gott!

맙소사!

Es ist nichts.

아무것도 없습니다.

Doch, da war was!

뭔가 있었다!

Los! Mach die Tür auf.

어서. 문을 열어.

Los!

어서!

Noch einmal!

다시!

Was was das?

그게 뭐야?

Melken! Wir können dann die Milch trinken.

우유 짜기! 그러면 우리는 우유를 마실 수 있겠군.

5:50

Los, geh!

어서, 움직여!

Fertig?

끝났니?

6:35

Mein Gott!

이런!

Woher kommt denn der?

그 아이는 어디서 온 거냐?

Was saft er?

아이가 뭐라는 거냐?

6:45

Nun komm!

어서!

Komm!

오라니깐!

7:40

Das genügt.

이정도면 될 거다.

Halt ihn fest.

그를 꼭 잡아.

Los, beeil dich!

어서, 서둘러!

5:50

Was gibt's?

무슨 일이야?

Auf! Auf! Angriff! Angriff!

일어나세요! 일어나! 공격이에요! 공격!

Die Amerikaner! Sie sind drassen!

미군입니다! 그들이 밖에 있어요!

Lass ihn los! Lass ihn los!

그를 풀어주세요! 그를 풀어줘요!

Fertig?

준비됐나?

Los!

움직여!